

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응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티드 플케지 네이션과
함께 아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대표전화 : (703)281-9660 koreadaily.com

중앙일보

①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490호

Monday, February 16 2026 A

희망찬 병오년 설날… 두루미의 비상



이른 아침 '겨울 진객' 재두루미 떼가 강원도 철원군 한탄강 설산 위를 날고 있다. 흰 목을 길게 빼고 착륙 준비를 하는 두루미들은 인적이 드문 비무장지대와 인근 토교저수지 등에서 밤을 보내고 철새도래지로 날아든다. 멸종위기종인 두루미는 지구상에 약 15종이 남아있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종은 주로 재두루미와 흑두루미다. 두루미는 울음소리에서 유래한 순수 우리말이고 한자로는 학(鶴)이다. 1000년을 산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수명은 평균 40~50년이며 평생 암수 한 쌍이 짹을 이루고 살아, 무병장수와 부부금실의 상징이기도 하다. 유종현 철원 두루미운영협의체 사무국장은 "겉모습도 우아한 두루미들이 무리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위안과 평화의 마음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사진·글=김정훈 기자

1000달러 제공 '트럼프 계좌' 7월5일 시행

2025-28년 출생아동 대상
종잣돈 개념…은퇴용 평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의한 대규모 세금·지출 패키지 법안에 따라 신생아에게 1000달러의 초기 자금이 지급되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일명 '아기 계좌'가 오는 7월5일 시행된다.

한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계좌는 장기 저축을 유도하는 세제혜택 형 저축계좌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자산 형성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계좌는 2025년부터 2028년 까지 출생한 모든 아동의 저축 계좌에 1000달러를 시드머니로 입금해주는 데



새로 출생한 어린이를 위한 '트럼프 계좌'가 7월5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사실상 아동용 IRA(개인은퇴계좌)와 유사하다고 분석된다.

'아기 계좌' 개설은 부모는 물론이고 법적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대략 두 가

지 방법이 있다. 이 중 온라인 웹사이트 (trumpaccounts.gov)를 이용하는 것 이 가장 좋은 방법인 데, 이 때 IRS 양식 4547과 함께 아기의 생년월일과 소셜번호(SSN), 그리고 연락처 기입을 필수적으로 마쳐야 한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2025년 소득세 세금 보고를 할 때 양식 4547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모든 양식을 제출하게 되면 IRS는 트럼프 계좌를 개설하게 되는데 이 절차는 5월부터 진행될 계획이다.

아직 계좌의 관리 금융기관은 확정되지 않았다.

종잣돈이 될 계좌의 1000달러는 7월4 일 이후 인증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입금되지만, 아동 소유 계좌인 관계로

18세가 될 때까지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관리를 맡는다.

트럼프 계좌의 자금은 S&P 500 또는 주식 중심의 지수를 추종하는 뮤추얼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야 하며, 계좌 자금은 아동이 18세가 되는 해당 연도 1월1일 이전에는 인출이 불가능하고, 이후에는 일반 IRA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5년 전에 출생한 아동도 18세 미만이면 '트럼프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다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워싱턴 한인사회도 '트럼프 계좌'가 태어나는 아기는 물론이고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성한 기자

파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 빌
301-279-6960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액물 전문
• G.I.A 디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손금 아기 블먼지, 꽃피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밍
구합니다.
410-988-5523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MEMBER
FDIC

우리아메리카은행 센터빌 지점에서 Full-Time 텔러를 찾습니다!

*본 채용은 미국 내에서 비자 후원 없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고객을 가장 먼저 만나는 당신, "우리아메리카은행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의료보험 / 유급 휴가 (Paid Time Off) / 401K 퇴직연금 등

다양한 복지 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커리어를 시작해보세요. 지금 지원하고, 우리와 함께 성장하세요!

이력서는 hr@wooriamericabank.com으로 송부 바랍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출신 국가, 연령, 장애 여부, 군 복무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성을 포용하고 존중하며, 모두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12)244-3000 (ext.6654) 혹은 hr@wooriamericabank.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우리아메리카은행 센터빌 지점

13832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Tel : (703)988-9555

WOORI AMERICA BANK

트럼프 대통령, 온실가스 규제 근거 폐기

차량 배기ガ스 제한 완화 전망
환경단체·민주당 주, 소송 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로 활용돼 온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결론을 폐기한다고 12일 공식 발표했다.

온실가스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고 명시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판단을 뒤집고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흐름에 또 다시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젤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EPA가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이는 차량 연비 규제나 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등 미국의 각종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 왔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를 공식 폐기함에 따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에 대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위해성 판단'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강제로 구매해야 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리젤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함께 온실가스 규제 근거 폐기사를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한 뒤 "이런 치명적인 규제는 차 가격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이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1조

동차 제조사들이 미국에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과도한 온실가스가 폭염·가뭄·산불 같은 극단적 기상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과 국제사회의 주류적 견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위기를 '거짓말' 내지 '사기'로 규정하며 회석연료 사용을 장려해왔다.

이날 발표와 관련해 환경단체 등이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 갠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도 소송 방침을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 불법적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 무모한 도전이 법적 도전을 견뎌낸다면, 더 치명적인 산불과 극심한 폭염·사방, 기후로 인한 홍수와 가뭄 증가, 전국 지역사회에 대한 더 큰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VA '레크리에이션 용수 사용' 주의보 발령

버지니아주 보건부(VDH)는 13일 포토맥 강 하류 유출 사고로 인해 레크리에이션 용수 사용 주의보를 발령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수질 샘플에서 대장균 수치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이번 주의보는 동쪽 스톤 캡 인근의 포웰강 남쪽 지류부터 빅스톤 캡의 포웰강까지 발령됐다.

보건 당국은 사람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수영, 물놀이, 튜브 타기, 금류 카약은 가급적 삼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현재로서는 식수에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는 지난 달 두 개의 펌프가 생분해되지 않은 물티슈로 막혀 가동이 중단되면서 수 갤런의 하수가 포토맥강으로 흘러들어간 사



버지니아주 보건부는 레크리에이션 용수 사용 주의보를 발령했다.

건 이후에 나온 것이다.

혹시라도 오염된 물은 마시면 구토, 설사, 메스꺼움, 복통, 발열 등의 위장 질환과 귀, 코, 목, 피부 감염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VDH는 하수 시스템 복구에 최대 6주가 걸릴 수 있다며 건강 문제에 각별

히 유념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모렐 앤더슨은 "저는 간호사라서 공중 보건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치료하기 정말 어려운 지독한 감염에 짚지 않잖아요. 물에 조심하고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김성한 기자

'건조한 봄철' 워싱턴 곳곳서 주택 화재

1명 부상 15명 이재민 발생

주말 사이 워싱턴 지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워싱턴 DC 소방국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께 1400 이스트 애비뉴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한 여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1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오전 7시45분께는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5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몽고메리 소방국에 따르면, 불은



몽고메리 주택 화재를 소방관들이 진화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몽고메리 소방국 제공]

10200 파크우드 드라이브 일대에서 일어났는데, 당시 리모델링 중인 관계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화재는 전날 밤 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성한 기자

MD 저소득층 주민 '에너지 요금' 할인 혜택

메릴랜드주 저소득층 주민들은 처음으로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받아 외부 보조금이나 환불 없이도 전기 및 가스 요금을 낮출 수 있게 됐다.

메릴랜드 공공서비스위원회가 13일

모든 공공사업체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고 전격 시행을 알렸다.

이 프로그램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이 제도의 주된 목표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 주택 에너지

사무국(OHEP)을 통해 지원을 신청한 저소득층 고객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공공 사업체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정확히 어떻게 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나머지 요금 납부자들에게 분담될 가능성이 높아 귀

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구조로 설계될 계획으로, 목표는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연 소득의 6%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김성한 기자



워싱턴 날씨 (°F)

17일(화) 54-43 20일(금) 53-42
18일(수) 57-39 21일(토) 52-36
19일(목) 58-41 22일(일) 44-31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SALE
교통 좋은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 험 \$749,900
차고 2, 방 3, 화 3½

RENT
기차역 가까운 매나세스
3층 End 타운 험 \$2,900
차고 2, 방 3, 화 2½

REMAX Executives

12001 Rt 50, 2nd Fl, Fairfax, VA 22033 (703) 449-7629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남자 간호보조원 (MA) 채용합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봄철 목·허리·골반 불편함…집에서 편하게 관리하세요”

업/소/탐/방

세라젬 '마사지 베드' 프로모션 중
버지니아애나데일 K마켓 내 위치

세라젬 베지니아점이 겨울 봄철 추위로 목과 어깨, 허리, 골반의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마사지 베드 '마스터V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 봄철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겨울 봄철에는 기온 저하와 불규칙한 날씨로 인해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거나 쉬운 목과 어깨, 허리의 뼈근함이나 일상 동작 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세라젬 베지니아점은 이러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온열, 특화틸팅 마사지, 스판인 스캔 기능을 결합한 허리케어 솔루션으로 마스터 V 컬렉션을 제안하고 있다.

◆추위·스트레스에 지친 몸 살피는 '마사지 베드'

마스터 V 컬렉션은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느끼는 목, 어깨, 허리,



가정의 필수품 마사지 베드 '마스터 V 컬렉션'을 설명하는 캐런 박 지점장.

골반의 불편함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진 동시에 집에서 쉽게 꾸준히 사용해 건강 회복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목·어깨·허리·골반 중심의 과학적 마사지

마스터 V 컬렉션은 사용자의 하중을 정밀하게 척추 길이와 굴곡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온열이 최고 149도 까지 빠르게 도달해 긴장감을 풀어주고 불편함을 완화시켜 준다.

특히 척추온열도자의 1열이 대각

선 방향으로 틸팅되어 경추 부위를 더욱 세심하게 압박 마사지 해주도록 설계됐다.

세라젬에 따르면 마사지 베드는 새로 개발된 기법 적용으로 근육과 신경 부위를 작극해 근육 피로 완화에 도

움을 주도록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혜택은 매장에서 안내, 체험관 운영

캐런 박 세라젬 베지니아점장은 "이번 겨울 봄철 프로모션은 가격이나 혜택을 광고 문구에 담기보다는, 매장을 직접 방문한 고객에게 직접 상담을 통해 입장과 상황에 맞는 조건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언제든지 애나데일 한인타운 중심가에 위치한 K마켓 내 세라젬에 오셔서 제품도 직접 체험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은 뒤 선택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할인·할부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최고의 제품으로 최상의 건강과 행복을 안겨주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는 세라젬 베지니아점은 겨울의 끝자락인 동시에 봄철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으로 할인과 할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고객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주고 있다.

◆체험 예약 및 애나데일 매장

주소는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이고, 예약 전화는 703-798-7270이다.

김성한 기자

에어프레미아, '워싱턴DC~인천' 특별 할인 제공

오는 4월 신규 취항 기념

주 4회 운항

'대리점 이용 시 15% 더 저렴'

대한민국에 유일한 대표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Ar Premia)가 오는 2026년 4월 24일 '워싱턴 DC(IAD)→인천(ICN) 노선' 신규 취항을 앞두고, 한 미주 동부 시장 확대를 위한 취항 기념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에어프레미아의 워싱턴 DC→인천 노선은 매주 월·수·금·일 주 4회 운항되며, 미 동부 수도권 지

역과 한국을 잇는 새로운 장거리 항공 편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 이벤트는 에어프레미아 '공식 대리점' 전용으로 운영되며, 지정된 클래스 및 기간에 한해 1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판매 기간은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15%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이번 워싱턴 DC 노선은 미주 동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핵심 노선"이라며, "현지 대리점과의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초기 수요를 확보하고,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장거리 여행 선택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에어프레미아는 '꼭 필요한 가치'만 담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하이브리드 항공사로, 장거리 노선에 최적화된 기내 환경과 합리적인 운임 정책을 통해 차별화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항공사(Hybrid Service Carrier, HSC)란, 대형 항공사(FSC)의 고품질 서비스와 저비용 항공사의 합리적인 가격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항공 비즈니스 모델을 가리킨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말 워싱턴 DC~인천 간 신규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1995년 이후 31년 만에

이뤄지는 국적 항공사의 신규 진입이다.

▶운항 스케줄(현지 시각 기준)

IAD → ICN: 13:20 출발 / 17:55 도착 (+1일)

ICN → IAD: 10:00 출발 / 10:50 도착

▶대리점: 에이스여행사 201-461-0606

/ 익스프레스뉴욕 201 735 8072 / 푸른

투어 201-778-4000 / 동부관광 718-

939-1000 / 씨니여행사 718-353-8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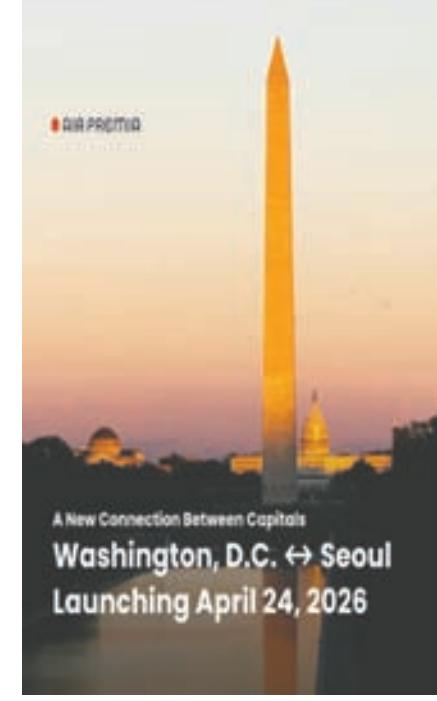
/ 가고파여행사 201-302-0820 / 위키힐

여행사 201-346-1166 / 유여행사 718-

463-9500 / 동아여행사 212-696-2700

/ 탑여행사 703-543-2322

홍보 및 기자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m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사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데이빗 막스 변호사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 막스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 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학자금 대출 불만 1만8400건 사상 최고

전년보다 36%나 대폭 증가
상환과 신용보고 가장 많아
탕감 처리 적체 매우 심각
신청서 접수 후 1년 넘어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의 불만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공공서비스 부문 종사자를 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 대상자들 가운데는 신청서를 접수하고도 1년 넘게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청(CFPB)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24~2025)에 접수된 학자금 대출 관련 불만은 1만 8400건을 넘어섰다.

CFPB는 보고서를 통해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라며 “각 회계 연도 기준 학자금 대출 관련 불만 건수로는 최고치”라고 밝혔다.

CNBC는 12일 이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구체적인 불만 내용을 분석해 보도했다. 보고서 초안에는 전체 불만 가운데 5017건을 표본으로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CNBC에 따르면 대출자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불만은 상환 문제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이어 크레딧 보고 문제(15%), 행정 절차 문제(14%), PSLF 적체(9%) 순이었다.

이 매체는 “최근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80만 명 이상의 대출자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신청 및 월 납부액을 낮추는 저렴한 상환 프로그램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PSLF의 경우 8만3370건이 아직 처리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것이지만, 대출자들이 제출한 불만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이 일부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CNBC는 이번에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CFPB의 전 학자금 대출 담당자 줄리아 바너드는 “당시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지만 일부 내용이 검열되면서 교육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대중에 공개되는 정보가 적을수록 기관의 책임성은 약화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FPB 측은 보고서 내용이 일부 누락된 이유와 관련해 “보고서 초안이 당시 법적 요건을 전혀 다루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NBC는 또 적체 현상 심화의 배경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3월 교육부 인력의 약 절반을 감축한 점을 지목했다. 당시 해고된 직원들 가운데 상당 수가 학자금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으로 알려졌다.

케이티 펀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 11월 PSLF 수혜 자격을 갖췄다는 통보를 받은 뒤 탕감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14개월 이 넘도록 아무런 업데이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PSLF는 2007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제도화됐다. 비영리 단체나 정부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김경준 기자

H-1B 비자 전면 폐지 추진
공화 연방 하원 법안 발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 발의되면서, 외국 인력 활용이 미국인 일자리와 청년층 취업 기회를 잠식하고 있다는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공화당 소속 그렉 스튜브 연방 하원 의원은 9일 H-1B 제도를 아예 없애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 노동 착취 면제 종료법(EXILE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민·국적법(INA)을 개정해 H-1B 비자 프로그램 자체를 종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튜브 의원은 성명을 통해 “외국인력을 미국 시민의 복지와 번영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와 국가 이익을 훼손한다”며 “H-1B 제도는 미국의 노동자와 청년층을 밀어내고, 기업과 외국 경쟁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의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를 비시민권자에게 넘기는 한 ‘아메리칸 드림’을 지킬 수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H-1B 비자 수혜자의 80% 이상이 인도 또는 중국 국적자로,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스튜브 의원은 H-1B 제도가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아 왔다며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외국인 의사 유입으로 1만 명이 넘는 미국인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지 못했고, 2025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H-1B 비자 9000건 이상을 승인받은 이후 1만 6000명 이상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주장이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전문직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강한길 기자



풋볼필드가 수영장으로

소파이 스타디움의 변신

2028 LA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LA28)는 경기장 배치 수정안을 발표하고 올림픽 수영 경기를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직위는 경기장 내부에 임시 수영장과 가변식 관중석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기존 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1억5000만 달러 이상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 증대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LA28 제공]

부와 비영리단체의 법적 절차 위반 및 공공자금 낭비를 이유로 법원에 부동산 계약 무효와 세금 환수, 추가 자금 지원금지 등 긴급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캘린 베스 LA시장은 성명을 통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연방 검찰과 협조하고 있다”며 “시는 부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 검찰은 지난해 10월 요양 시설 매각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쟁인 개발업자 스티븐 테일러를 부동산 시기 협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테일러는 부동산 수익을 목적으로 금융 기록을 위조하고 요양시설 매입 목적 등을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재 기자

1120만불 건물, 2730만불에 매입 ‘덤터기’

LA시, 공공자금 낭비 피소 홈리스 거주시설 마련 명분 시세의 두배 가격에 사들여 지역 주민들 계약 무효 주장

LA시정부가 험리스 거주시설을 시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매입해 공공자금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소송을 제기한 지역 주민들은 시정부가 시민들의 세금을 충분한 견증 절

차 없이 집행했다며, 해당 부동산 계약의 무효와 세금 환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뉴욕포스트는 LA지역 주민 사만다 누스바움과 하워드 그로스먼이 LA시와 주택개발국, 가주 주택·지역개발부, 비영리단체 와인가트 센터 협회를 상대로 납세자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을 낭비하고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며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원고 측은 LA시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험리스 및 저소득층 시니어를 위

한 거주시설 마련을 명분으로 웨스트 LA 체비엇 힐스 소재 한 시니어 요양 시설을 시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LA시는 와인가트 센터 협회가 해당 요양시설을 2730만 달러에 매입하도록 승인했다. 그러나 이 시설은 불과 며칠 전 부동산 개발업자 스티븐 테일러가 112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테일러는 이를 와인가트 센터 측에 되팔아 1610만 달러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LA시 정부와 관계자들

이 납세자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충분한 견증 절차 없이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LA시는 험리스와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거주시설 마련을 위해 ‘홈카+’ 프로그램 예산을 비영리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원고 측은 이번 부동산 거래가 감정평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며, 가주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기한도 지키지 않았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아울러 비영리단체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LA시 정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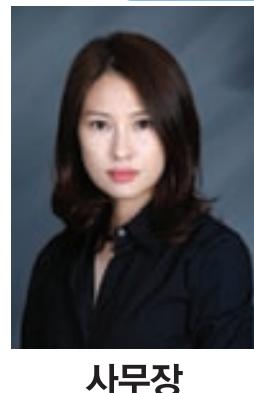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림.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571-564-3282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미국 11월 중간선거, 중국만이 트럼프 도울 수 있다?

‘2025년은 시진핑의 승리’ ‘트럼프가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미·중 관계에서 자주 들게 되는 말이다. 지난해 초 트럼프 미 대통령 귀환 시엔 전혀 상상도 못하던 이야기다. 145% 대중 관세 등등 이를 휘두르던 미국의 기세는 어디로 갔나. 자신감 뿐만의 중국에선 미국과의 ‘대타협(grand bargain)’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트럼프 2기의 대중 정책이 초반 큰 수장을 겪는 모양새다.

재출발할 때는 1기와 같은 강경 모드였다. 수단도 관세로 같았다. 트럼프의 생각은 단순하다. 중국의 발전은 주로 수출에 의존한다. 국가별로 볼 때 미국이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미국이 관세 카드를 꺼내면 중국은 당할 수 밖에 없다. 또 중국은 보복 수단도 별로 없어 미국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없다. 미국이 찌어 누르면 중국은 따를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1기 때도 승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트럼프의 계산은 지난 1년간 중요한 변화를 거친다. 크게 세 단계라고 우신보(吳心伯) 중국 푸단(復旦) 대 국제문제연구원 원장 겸 미국연구센터 주임은 말한다. 첫 번째는 싸우면서 친해지는(不打不相識) 과정이다. 2025년 1월부터 미·중 무역 담판이 시작되는 5월까지다. 이때 트럼프는 우선 펜타닐 관세, 상호관세, 보복 관세 등으로 대중 관세를 145%까지 올리는 강수를 둔다.

이쯤 되면 중국이 백기를 들어야 하는데 웬걸, 중국은 끝까지 상대해 준다(奉陪到底) 전략으로 맞선다. 대미 보복관세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그리고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중국의 반격에 준비가 돼 있지 않던 미국은 부득불 대화를 모색한다. 두 번째 단계는 5월 제네바 회담에서 10월 쿠알라룸푸르 담판까지로 다섯 차례 만남이 이뤄지는 데 이 시기 특징은 서로 때리면서 대화하는(打打談談) 것이다.

트럼프, 바이든과 달리 이념 경쟁은 지양 싸움은 9월 말 미 상무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을 늘리자 발끈 한 중국이 10월 초 강력한 희토류 통제에 나서며 절정으로 치닫는다. 세 번째 단계는 10월 말 트럼프·시진핑 부산 정상회담에서 현재까지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 대면한 두 사람은 결국 무역 합의를 이루는데 서로 손을 잡고 화해한(握手言和) 것이다. 양국 관계가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일단 더 나빠지지는 않게 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30일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마친 뒤 짚속말을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시진핑이 물려선 게 아니라 트럼프가 양보한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환호하는 배경이다. “미국이 정책 조정을 한 것은 중국의 굴기가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라고 중국 상하이외국어대학의 걸출교수(傑出教授) 황정(黃靖)은 말한다. 중국의 국력이 일취월장해 미국의 대등한 경쟁자(peer competitor)로 올라섰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다.

황정은 중국의 굴기에 따라 미국이 갖고 있던 패권의 4대 기둥 가운데 세 개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이데올로기. 미국은 오랜 세월 자유와 민주, 인권의 보루 역할을 했지만 트럼프는 이런 걸 거추장스럽게 느낀다.

두 번째는 첨단 기술. 딥시크 충격이 말

미, 희토류 압박에 대중 관세 뒷걸음 중국 내 “굴기가 미 변화 불러” 고무

중간선거 앞 트럼프화해 손짓 기대 “콩·옥수수·석유 사줄 나라 중국뿐”

트럼프·시진핑 회동 올 최대 4차례 경제·안보서 주고받기 많아질 수도

하듯 미국의 독주는 어렵다. 세 번째는 군사 패권인데 이 역시 거대한 충격을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서반구로 물려 설리 없지 않느냐는 논리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달러 패권인데

2025년 미·중 관계 어떻게 변해왔나

2월 4일	미국, 중국에 펜타닐 관세 10% 발표
10일	중국, 미국산 에너지·상품에 10~15% 보복관세 부과
4월 2일	미국, ‘상호관세’ 계획 발표하며 대중 관세율 34% 발표
4일	중국, 대미 맞불 관세로 34% 발표
10일	미국, 상호관세 시작 13시간 만에 대중 관세 125%로 재산정. 펜타닐 관련 관세 포함하면 총 145%
11일	중국, 맞불 관세 125%로 인상
5월 12일	미·중, 제네바서 1차 무역합의 (각자 관세를 115% 포인트 인하)
6월 10일	미·중, 런던서 2차 무역합의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 등 합의
7월 29일	미·중, 스톡홀름서 3차 무역합의 12차 합의 90일 연장 합의
9월 15일	미·중, 마드리드서 4차 무역합의 중국의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관련 프레임워크 합의
10월 9일	중국, 희토류 설비·기술 수출통제 강화 발표(11월 8일 시행)
10일	미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에 맞서 중국에 100% 추가 관세 부과 및 핵심 SW 수출 통제 예고(11월 1일 시행)
14일	미·중, 상대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 시작
30일	미·중 정상회담 부산서 개최. 미국 펜타닐 관세 10% 포인트 인하 및 상호 관세 24% 부과 유예 1년 연장.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1년 유예

2026년 트럼프-시진핑 회동 가능성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 방문
8~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 방문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 개최. 트럼프 방중 가능성
12월	미국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개최. 시진핑 방미 가능성

이 역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황정은 주장한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도 착실한 성과를 냈다. 트럼프가 석탄과 석유 등 구시대 에너지로 돌아갈 때 중국은 전기차 등 청정 에너지를 말한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미국은 퇴장하지만 중국은 적극적으로 참가 중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국제 여론 흐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 2025년 여름부터는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고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긴 지난달 국내 여론 조사에서도 시진핑 주석에 대한 호감도(21%)가 트럼프 대통령(19%)을 미세하게 하지만 앞서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으니 말이

다. 트럼프 정부는 2025년 1년 동안 중국과 겨뤄본 뒤 최근엔 전략적 후퇴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이를 짐작하는 대표적 문건이 지난해 12월 발표된 미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다. 여기에서 중국에 부정적인 어휘는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 자주 등장하던 ‘중국 위협’이나 ‘중국 도전’ 등의 표현이 사라졌다. 단지 경제 부분에서 ‘경쟁(competition)’ 정도의 단어가 나타난다. 특히 지역의 우선 순위에서 서반구를 첫 번째로 꼽아 중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의 강도가 상당히 낮아졌다.

또 이념을 문제삼지 않고 중국과의 경쟁을 경제 기술분야에 집중시키고 있다. 이 정도면 중국은 한시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자신감이 상승한다. 우신보는 앞으로 미·중 관계의 의제 설정에서 과거엔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패턴은 약화하고 중국의 목소리가 점차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미·중간 3차 대타협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게 우신보의 주장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중 사이엔 두 차례의 대타협 시기가 있었다. 첫 번째 전환점은 1972년 낙수 미 대통령의 방중이었다. 당시 미국은 소련의 팽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억제 정책을 버리고 회해를 추구했다. 이는 냉전이 종식되며 와해됐다. 두 번째는 1990년대 중기다. 당시 클린턴 정부는 굴기 중인 중국을 수용해 중국 경제의 현대화를 지지했다.

이런 흐름은 2017년 트럼프 1기가 시작하며 무너졌다. 미국이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로 지목하며 전략적 경쟁자라 규정한 것이다. 바이든 시기엔 중국을 가장 중대한 도전자라 칭하며 인권 등 이념과 체제, 군사 등 다방면에서 압박했다. 공급망에서는 디-리스킹(위험 회피), 첨단 기술 면에서는 ‘마당은 좀 높은 편’(small yard high fence) 구호가 보여주듯 통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는 3차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우신보의 인식이다. 미·중이 서로 안정된 관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바이든과 달리 미·중 경쟁에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싸움이라는 성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또 시진핑을 정치적 강인(強人)이라고 칭찬하며 세계를 미국과 중국, 러시아 3대 대국의 구도로 보고 이들 간의 충돌을 피하려 한다.

유상철 중국연구소장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법원과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실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llc.com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허리/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우릎 통증/자주崴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산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챈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타빌 러프/챈들리 클리닉에서 각각 5분거리

COWAY

신제품 스위치 정수기 출시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 크기입니다



•———— 4.3 inch ———•

* 본 디자인은 당사에 귀속된 지적재산권이며, 코웨이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을 금지합니다.

지역별 대표전화
Los Angeles, CA (HQ) (213) 386-3033

New York & New Jersey (201) 482-4011
Washington, DC (703) 992-0835

Atlanta, GA (678) 691-2195
Seattle, WA (253) 220-8893

Chicago, IL (847) 813-6293
Dallas, TX (972) 466-0999

설 앞두고 과일·고기·생선·쌀값 올라…정부 할인 지원

설을 이틀 앞둔 15일 서울 마포구 망원 시장, 오전 10시가 넘어서자 설 준비를 하려는 시민들과 동남아 등지에서 온 관광객으로 시장은 다니기 힘들 정도로 붐볐다.

전을 부쳐 파는 가게나 정육점에는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

한 떡집에서는 떡국에 넣을 가래떡을 1kg에 9천원에 팔고 있었다. 가게 주인은 “8천원하던 것을 1천원 올렸다”면서 “쌀값이 최근에 너무 올라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떡집도 가래떡 가격을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올렸다고 했다. 가격표에는 기존 가격 위에 '9000'이라고 새로 써붙여놓은 흔적이 보였다.

건어물 가게에서는 마른오징어 한 마리에 가격표 '1만원'이 붙었다. 점주는 “국산 오징어가 요즘 비싸다. 한 마리 1만1천원은 받아야 하는데 1만원만 받는다”고 말했다.

과일 가게에서는 사과가 크기에 따라 가장 싼 것은 3개에 1만원이었지만 제수용이라고 써 있는 것은 1개 5천원 이었고 이보다 더 큰 것은 1개 1만2천원 이었다.

채소 가게에서는 시금치가 5천500~

6천원이었다. 가게 주인은 “4천~5천원 하던 것인데 명절이라 올랐다”고 말했다. 설 명절을 맞아 먹거리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설 성수품 등을 대상으로 40% 할인 지원을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사과는 후지 상품 10개 평균 소매가격이 지난 13일 기준 2만8천582 원으로 지난해나 평년보다 3% 이상 비싸다. 사과는 생산량이 감소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선물용 큰 사과의 가격 상승률이 높다.

다만 설에 수요가 많은 배는 신고 상품 10개에 3만5천89원으로 작년보다 27.7% 내렸다.

딸기는 100g(상품) 가격이 1천987원으로 작년보다 7.6% 비싸고 평년보다는 20.9% 높다. 감귤은 10개에 4천562 원으로 작년보다 30.5% 비싸지만, 평년보다는 10.1% 비싸다.

고환율 영향을 받는 수입 과일도 올랐다. 망고는 1개(상품) 5천874원으로 작년보다 35.2% 비싸고 평년보다 13.4% 높다. 오렌지는 10개(상품) 2만4



시장 과일가게

천448원으로 지난해보다 16.7% 올랐으며 평년 대비 43.7% 비싸다.

파인애플, 바나나도 상승했다. 정부가 망고와 파인애플, 바나나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5%로 낮추기로 했지만, 가격은 아직 높다.

설에 떡국이나 떡 등 수요가 많은 쌀은 20kg에 6만2천537원으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14% 이상 높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비싸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축산물은 작년 동

기 대비 4.1% 올랐으며 수산물은 5.9% 뛰었다.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2.0%)의 2~3배 수준이다. 한우는 지난해보다 사육 마릿수가 감소한 가운데 갈비는 1+등급 100g이 7천377원으로 작년보다 11.7% 상승했다.

다만 정부가 설 성수기 할인을 지원하는 등식은 1+ 등급 100g 가격이 1만290원으로 12% 하락했다.

돼지고기는 삼겹살이 100g당 2천600원대로 작년보다 4% 비싸며 목살과 갈비, 앞다리 가격도 모두 올랐다.

수입 소고기도 고환율 여파로 가격이 강세다. 미국산 갈비살(냉장)은 100g당 4천905원으로 5% 올랐다. 미국산 척아이롤(냉장)은 100g당 3천921원으로 작년보다 32.5% 상승했다. 호주산 척아이롤(냉장)은 4천24원으로 25.4% 비싸다. 닭고기도 소폭 올랐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한 영향으로 계란은 특란 한 판(30구)이 6천921원으로 5.7% 비싸다.

수산물 중 '국민 생선' 고등어는 국산 염장 중품 한 손 가격이 6천원이 넘어 평년보다 50% 이상 비싸다. 수입 염장 상품 한 손은 1만원이 넘는데 평년보다 30% 넘게 높다.

갈치는 국산 냉장(대)은 한 마리 1만5천원 수준으로 작년보다 4% 가량 싸지만 국산 냉동(대)은 1만원대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10% 넘게 비싸다.

정부는 설 명절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달 2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대한항공 타도 못먹는데…

저가항공, 라면이 '신의 한수' 됐다 왜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경쟁 무대가 하늘에서 기내로 옮겨가고 있다. 항공권 가격이 평준화하면서 ‘얼마나 싼지’보다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브랜드를 가르는 기준으로 떠올랐다. 가격 경쟁이 한계에 다다르자 전략의 중심이 ‘기내 경험’으로 이동한 것이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성수기 동남아·일본 노선의 경우 LCC 간 가격 차이는 예전만큼 크지 않다. 출발 시간과 수하물 조건을 맞추면 차이는 수만원 수준으로 좁혀진다.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운임이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다. 가격 차별화 여지가 줄어들면서 항공사들은 기내 서비스에서 승부를 보기 시작했다.

신생 항공사 파리타항공은 기내 라면과 간편식을 차별점으로 내세워 단거리 승객을 공략하고 있다. 다양한 브랜드 라면과 즉석 간편식을 구성해 선택 폭을 넓혔다. 대한항공과 아

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들이 기내 라면 서비스를 제한한 것과는 대비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라면은 원가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체감 만족도는 높다”며 “SNS 확산효과까지 고려하면 효율적인 전략상품”이라고 말했다.

했다. 장거리로 눈을 돌린 LCC들은 기내식 선택 폭을 더 넓히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CJ제일제당의 한식 브랜드 비비고와 협업해 기내식을 제공 중이다. ‘비벼진 비빔밥’과

‘폭찹스테이크’가 대표 메뉴다. 유럽 파리·로마·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 노선과 호주 시드니 노선 등 장거리 노선에 선보인다.

비벼진 비빔밥은 고추장 양념을 미리 비벼 내놓아 기내에서 간편하게 섭취 할 수 있도록 한 메뉴다.

폭찹스테이크는 특제 와인소스를 곁들였다. 유럽 노선에서는 승객 전원에게 4종 메뉴 중 두 차례 무상 기내식이

포함된다. 시드니 노선은 ‘비즈니스 세이버’ 승객에게 두 번, 이코노미 승객에게 한번 무상 기내식을 제공한다. 기존 ‘소시지&에그 브런치’와 ‘소고기 버섯 족’도 양과 구성을 개선해 4월 중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제주항공도 외식 브랜드와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식 전문점과 공동 개발한 소갈비찜·떡갈비 메뉴를 기내식으로 도입했다. 제주 특산물을 활용한 ‘제주발한끼 산채밥’ 등 지역 색채를 살린 메뉴도 운영 중이다. 기내 한정 굿즈(기획상품)와 간식 상품을 늘리는 등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LCC들은 기내식과 간식, 굿즈 판매 등 부가서비스를 통해 수익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브랜드 개성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항공권 운임만으로 높은 마진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일부 LCC의 부가 매출 비중이 두 자릿수에 근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우 기자



설 연휴를 앞둔 1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탑승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철석같이 믿고 달리다 20명 숨졌다

고속도로 죽음 부른 이것

고속도로에서 어탭티드 크루즈콘트롤(ACC)을 작동한 상태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최근 5년간 2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서 ACC을 켜 상태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20명

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 사망자는 ▲2021년 1명 ▲2022년 4명 ▲2023년 2명 ▲2024년 11명 ▲2025년 2명으로, 매년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특히 2024년에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을 보면 ACC를 켜 상태로 주행하다가 전방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이미 사고로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가 적지 않았다.

정재홍 기자

백성호 CPA, MBA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 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인부(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백성호 공인회계사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 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나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1. 센터빌 타운	SOLD \$650,000
방3, 화2.5, 치고1 RT 28, 66 교통편, 전부 업그레이드	
2. 애쉬번 타운	SOLD \$660,000
방 4, 화 3.5, 치고, 최고 학교, RT 267/7, 멀리스 공항, 전부 리모델링, 새집 같음	
3. 맥클린 콘도	SOLD \$389,000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4. 스톤링 타운	SOLD \$645,000
2014년, 방3, 화2.5, 치고2, RT 50/606, Dulles Airport, RT28	
5.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너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렉서리 싱글	
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1. Bristow 55+ Villa \$670,000 2. 매너사스 2025 새집 \$670,000 3. Bristow 55+ single \$750,000 4. Bristow 55+ Villa \$670,000	
Sold	
7. 애쉬번 뉴타운 55+	\$790,000
Pending	
8. 도미니언 블리 건트리 클럽, 헤이마켓 싱글 \$1,699,000	
애미커 숲속, 6,700sqft, 방5, 화3.5, 치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어 천장, 스파실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니아룸, 게이트룸, 바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9. 알디 싱글	SOLD \$869,000
2004년, 방4, 화2.5, 치고2, 전체마루, 퀸리모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8년! 활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통한식



한식의 품격

4명의 셰프가 빚어낸
정통의 맛을 전합니다.

깊이 있는 정통 한식의 맛!!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혜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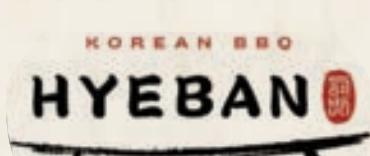
월, 화, 목, 일
수요일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
정기 휴무 / CLOSED
오전 11시 ~ 오후 11시

즉석 칼국수 신메뉴 출시!

Weekly Special

따뜻한 즉석 칼국수와 깊은 맛의 닭볶음탕
런치 뷔페에서 만나요.~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구 인

홀 서버 (Hall Server)

다주택자 또 때린 이 대통령 “대출 연장 혜택 공정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양도소득 세 종과 부활에 이어 대출 만기 제한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다. 금융당국도 이날 금융권 점검 회의를 열어 다주택자의 관행적인 대출 연장과 관련해 신속한 개선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정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기회를 줬는데도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하나?”며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주택자는 “버티지 말고 매도하라”는 것이다. 금융권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금융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가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 유예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매물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자 대출 카드까지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다주택자 대출 제한 조치는 과



귀성 인사하는 정청래, 배식 봉사하는 장동혁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여야 대표들은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종림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설맞이 배식 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

임현동 기자

SNS에 글, 압박 수위 올려

대출 만기 제한 가능성까지 거론

‘버티지 말고 집 팔아라’ 시그널
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 점검키로

거 빚을 내 2주택 이상을 매입한 이들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해 6·27 대책 등으로 현재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유주택자의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하다. 하지만 기존 대출은 관행적으로 만기가 연장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번 조치의 초점이 개인의 주택 구입용 주담대보다 임대사업자에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주담대는 30~40년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 구조가 대부분이라 만기 연장 개념이 없다.

이와 달리 임대사업자 대출은 1~3년 단위로 만기를 설정하고, 만기가 되면 연장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다만, 임대사업자 대출(거주용·비거주용·기타)에서 거주용 비중은 크지 않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의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5조1777억원으로, 전체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178조4395억원)의 8.5% 수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장 매물을 유도하기보다는 정책 의지를 드러내는 압박 메시지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전 금융권을 긴급 소집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특히 금융권과 협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주택자 대출을 점검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사들이 대출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

이 관행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준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책이 다주택자를 겨냥 했더라도 실제 충격은 세입자에게 먼저 전달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판단해야 할 ‘차주의 상환 능력’을 행정적으로 통제하면 관리금융 논란과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친한계 배현진 당원권 1년 징계

〈윤리위〉

“일반인 자녀 사진 SNS 게재 문제”
배 “서울 공천권 강탈 교활한 선택”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기자회견 직전 한동훈 전 대표의 격려를 받고 있다.

배 의원은 결정 이후 국회 소통관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현진 체제의 선 거조직 무력화를 위해 당원권 정지 1년

이라는 무리한 칼날을 휘두른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경고한다”며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회견장에 한 전 대표가

함께했으나 취재진의 질의엔 말을 아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22%) 지지율은 민주당(44%)의 딱 절반에 그쳤다.

손국희·박준규 기자

ISSUE

혁신도시 통근버스 폐지 논란

“장사 천국 열려”, “출퇴근 생지옥”

“드디어 장사 천국이 열리지 않겠어요?”(강원혁신도시 음식점 사장) “출퇴근 생지옥이 펼쳐질 겁니다.”(A공공기관 김모 대리)

도시도 일반도시가 아니다. ‘혁신 도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로 가는 전세버스를

대주면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없다”

고 지적한 뒤 한계를 그곳에서 끄집어 나오는 말들이다. 국토교통부는 당장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를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 대통령의 ‘통근버스’ 질타는 느닷없는 게 아니라 수도권 일국 타파, 부동산 정상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연장선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국 혁신도시는 10곳.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거점 활성화를 내걸고 ‘시즌1’이 2003년부터 추진돼 16년 만인 2019년 149개 공공기관이 옮기며 마무리됐다. 그중 47곳이 한 해 220억여원을 대며 통근버스를 운영 중이다. 금요일 오후만 되면 텅 비는 도시에 현지 소상공인들은 유품이다.

혁신도시 ‘시즌2’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331곳 직원은 44만4000여 명. 그 중 상당수가 혁신도시로 내려갔거나 내려갈 예정이다. 중앙SUNDAY는

이 대통령 발언 이후 혁신도시 현장을 찾았다.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심지어 통근버스 기사 등 수십만 명이 함께 술렁이고 있었다.

김홍준 기자

① 중앙일보 구독신청 : 703-281-9660

정승우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IRS 감사
세무당감
전문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 전문의)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자동차 사고후유증
- 척추디스크통증
- 두통, 목, 허리 통증
- 손, 발 통증 및 저림
- 어깨 결림 및 통증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임기)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연애는 사치” “강아지랑 놀죠” … 요즘 밸런타인

“예전엔 이맘때면 가게 앞이 꽉 막힐 정도로 손님이 많았죠.”

밸런타인데이를 사흘 앞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을지로 방산시장의 한 제과제빵 재료 가게, 초콜릿 몰드(틀)를 정리하던 주인 박성경(52)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전부터 내리던 부슬비 탓인지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손님들로 북적이던 옛 모습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 골목은 한산했다. 박씨는 “수제 초콜릿 재료를 사려고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던 건 다 옛날 얘기”라며 “이젠 밸런타인데이라고 해서 딱히 다를 것도 없다”고 아쉬워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때까지 이성 교제는 사치죠.” 이날 오후 시장 골목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강이서(28)씨는 다크 초콜릿 칩과 버터 등 흙 베이킹 재료를 손에 들고 귀가 중이었다. ‘연인에게 요리해줄 거냐’고 묻자 그는 손사래부터 쳤다. 대학 졸업 후 연애는 일절 하지 않고 있다는 강씨는 “흙 베이킹은 애인이 아니라 취업 준비에 지친 나 자신에게 선물할 디저트”라며 “기분 전환을 위한 취미일 뿐 이성에게 쏟을 시간은 없다”며 멋쩍게 웃었다.

연애를 사치로 여기는 건 강씨만이 아니다. 학업과 취업난 속에서 무한 경쟁 중인 20대 청년층 사이에선 이성 교제보다 자신의 삶을 더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MZ세대 내에서는 연애하지 않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습도 감지된다. 2024년 12월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19~24세 청년 중 78.9%, 25~29세 청년 중 58.3%는 이성 교제 상대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 나아가 현재 연애 대상이 없는 19~29세 청년 세 명 가운데 한 명(33%)은 앞으로도 교제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창 이성에 관심이 많을 20대 청년 중 절반 이상이 연애하지 않는 사회. 이들이 이성 교제에 시큰둥한 이유는 뭘까. 데이터 컨설팅 기업인 피아마이(PMI)가 지난해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 소모’(52.6%)와 ‘경제적 부담’(39.6%)이 연애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주된 이유로 꼽혔다. 청년층 사이에서 시간과 감정 소모가 불가피한 이성 교제 대신 자신만의 확실한 즐거움을 선택하는 경향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는 사이 과거 연인들의 대표적



밸런타인데이를 닷새 앞둔 지난 9일 서울시내 대형 마트를 찾은 한 시민이 매장 진열대에서 초콜릿과 사탕 등 선물을 고르고 있다.

MZ세대 밸런타인데이 신풍속도

19~29세 셋 중 하나 ‘연애 안할 것’

학업·취업난 속 감정 소모 꺼려해

반려견 교감·두郓쿠 만들기로 만족

여자만의 파티 ‘밸런타인데이’ 도

도 크게 늘었다”고 소개했다. 밸런타인데이는 걸(Girl)과 밸런타인데이의 합성어로 마음이 맞는 여성들끼리 모여 즐기는 날이라는 신조어다.

애견용 쿠키 재료를 사서 방산시장을 찾았다는 직장인 김시현(32)씨는 연애 대신 반려견과의 교감을 선택했다. 김씨는 “일이 몰릴 때면 퇴근 시간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들쭉날쭉 한 근무 여건 탓에 이성 교제는 일찌감치 마음을 접었다”며 “특별한 날이라며 예약 전쟁을 벌이고 상대방이 만족할지 가슴 졸여야 하는 이성 교제보다는 항상 나를 기다려주는 반려견에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성 교제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들 사이에선 사회적 관계 플랫폼 활용도 크게 늘고 있다.

과거 이성 만남의 도구로 사용되던 데이팅 앱들도 ‘동네 친구 서비스’나 ‘관심사 기반 커뮤니티’를 내세우며 연애보다는 취미와 관심사에 방점을 찍는 추세다. 인근 공원을 함께 산책할 사람이나 새로 생긴 음식점에 함께 갈 사람을 찾아주는 식이다.

직장인 장지원(29)씨는 “앱으로 ‘두郓쿠 흙 베이킹’을 검색한 뒤엔 딱 그때 만재되게 놀고 헤어질 사람을 찾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밸런타인데이 선물을 준비하는 것보다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동년배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만족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랜 취업난과 경기 부진, 치솟는 물가 속에서 이성 교제에서

도 ‘효율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개인적 취미나 자기 계발을 선호하는 흐름 속에서 이성 교제 역시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리서치 업체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2025 인간관계 및 연애관 인식 조사’에 따르면 ‘연애도 효율성을 따지는 시대’라는 데 74.9%가 동의하기도 했다.

이런 추세는 해외도 마찬가지다.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지난해 8월 미국 내 Z세대(1997년생 이후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3%)은 지난 한 달간 데이트 비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중국청년일보가 중국 내 대학생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비연애 상태라고 응답했다.

다만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사회적 관계 지표가 낮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변에 친구나 가족 등 기댈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낮다”며 “연애하지 않는 사회도 이런 현실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면서 청년들의 사회적 연결 구조가 얼마나 건강한지 점검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황건강 기자

‘정치자금·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서 ‘모두 무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원 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사진) 소나무당 대표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혐의의 근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과 메시지 등을 원심과 같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송 대표가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송 대표 후원 조직인 먹사연이 정치자금법상 규제 대상인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선고 후 “애초부터 윤석열·한동훈 검찰 정권의 정직 죽이기용 기획수사였다는 게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며 “당원들 의견을 수렴해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름 기자

압수한 비트코인 또 유출 강남경찰서, 22개 사라져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비트코인 가격은 13일 시세 기준으로 약 21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내부자 가담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 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해당 비트코인을 임의 제출받아 보관해 왔다. 해당 수사는 도중에 중지됐고, 이후 특정 시점에 비트코인이 사라졌다.

강남경찰서는 수사가 중지돼 있는 동안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전국 수사기관 전수 조사 과정에서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림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 (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쇼설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 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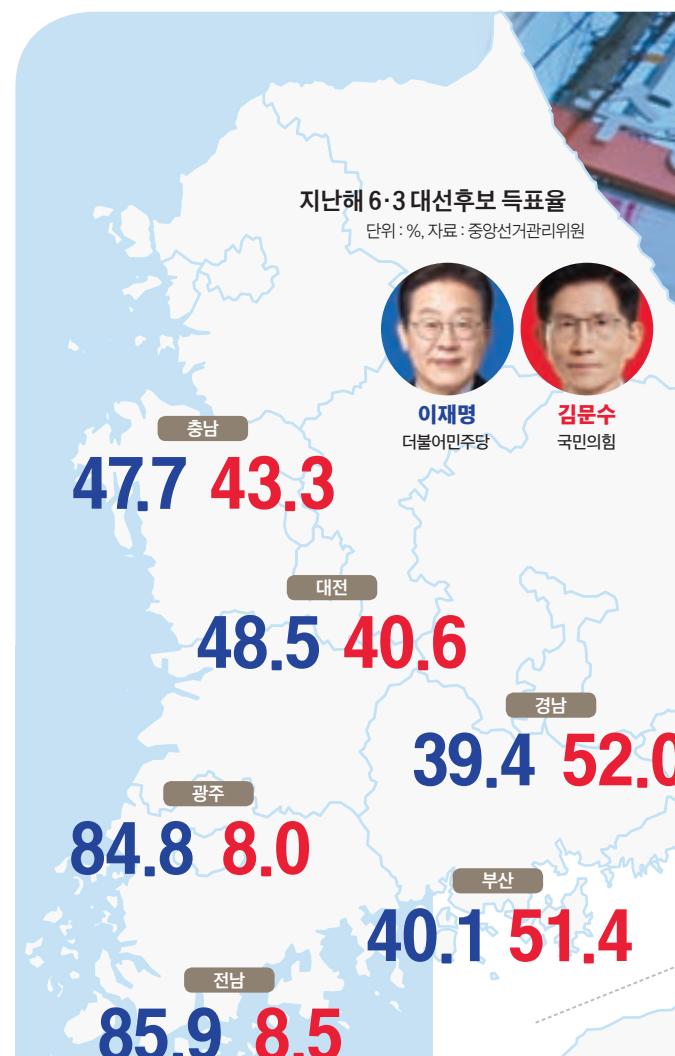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챔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해수부도 오고 변화” “살림살이는 그대로” 양분된 부산



올해 설 민심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향방을 가늠할 전초전의 성격을 띤다. 서울과 함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경남, 초대 통합시장 선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전·충남, 그리고 광주·전남의 민심을 미리 들여다봤다.

유권자들은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지지 정당과 후보는 갈렸지만,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변화를 만들어낼 단체장을 바란다는 요구만큼은 한목소리였다.

13일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통합특별법이 처리된 가운데, 통합을 둘러싼 인식은 지역별로 온도 차를 보였다. 이번에 통합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적잖은 난관이 예상됐다.

신수민 기자

*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8일 부산 수정전통시장에 정부가 추진한 해양수산부 이전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해수부 이전에 부산 시민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신수민 기자

부산·경남

부산 시민 “야당이 한계 뭐 있나”
김해 시민 “적폐몰이 여당 견제해야”
택시기사 “대통령 집값 잡기 듣든”
“여야 지지자 싸워 복욕탕도 못가”

부산시장 적합도

단위: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개혁신당



지난 8일 오전 부산역에 내리자마자 매서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영하 6도의 한파에 강풍까지 겹쳐

시내 곳곳에 걸린 현수막과 간판이 거세게 훈들렸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엎치락뒤치락하는 형국을 보는 듯했다.

부산역에서 만난 박모(75)씨는 “여기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텃밭인데 이재명이 지금 잘하잖아”라며 “해양수산부도 옮겨왔다 아이가”라고 말했다. 박씨는 “이 정도 주위는 부산에선 대단한 것도 아니다. 바람이 세서 그렇지”라고 덧붙였다. 해수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곧바로 부산역에서 버스로 10분 남짓 떨어진 해수부 부산청사 인근 수정전통시장으로 향했다. 시장 입구에는 상인회 일동 명의로 ‘해수부 이전을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점포들을 둘러보니 마상 상인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다.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김을임(72)씨는 “해수부 와서 좋다고 했더만 (업무) 마치면 (통근) 버스가 사람들을 싣고 좌우 가더라”며 “우리 생각이랑 완전 반대야.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라고 한숨을 쉬었다.

가게 철문이 바람에 덜컹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김씨는 “주변 집세는 또 40만원이 올랐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 여당을 향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김씨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검사들까지 못 살게 하고 나라를 자꾸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면 안 되지”라며 “민

주당은 일단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부산 대표 관광특구인 해운대 신시가지의 분위기도 궁금해졌다. 해운대구에서도 주거·상업시설이 밀집한 장산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 허영무(60)씨는 “근데 이 대통령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을 꺼냈다. 그러곤 “대통령이 여러 채 가진 사람들 잡겠다고 하지 않느냐”며 “집 없는 사람이 더 많고, 두 채 이상은 투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장산역 인근에서 만난 주부 김모(50)씨는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주변에선 재선이나 했는데 해놓은 게 없다는 얘기가 많다”며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마케팅하느냐에 달렸다. 젊은 사람들은 변화를 일으켰으면 하니깐요”라고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부산 지역 유일 민주당 현역인 전재수 의원이 본인이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얼마나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라는 의미였다.

김씨는 범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선 “자녀 입시비리 때문에 아줌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안 좋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 대치동에 버금가는 학원가가 형성된 수영구 남천동에서 만난 주부 전모(52)씨도 “이번엔 바꿔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기업들이 부산에서 다 떠나고 있잖아요. 부산에 이렇다 할 산업이 없으니까”라면서다. 그는 다만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전씨는 “통합해서 뭐가 더 좋아지는지 모르겠다”며 “큰 권한을 줬는데 국민의힘이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반면 구도심인 중구 자갈치 시장에 선 정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강했다. 회센터에서 만난 50대 사장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 갖고 외식 자체를 못 한다”며 “(지역화폐) 쿠폰 없으면 사람들이 안 사 먹고, 쿠폰 있으면 그나마 사 먹는데, 그런 거도 안 좋아요. 나중에는 끓어갖고 더 안 좋아져요”라고 했다.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부산 북갑)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북구 만덕동 주민 안모(51)씨는 “이 동네가 워낙 낙후됐다보니 ‘전 의원이 같은 지역구 중에서도 덕천동과 구포동만 좋게 하

고 우리(만덕동)는 아예 버렸다”며 (시장으로) 안 찍는다더라. 여기만 (지구구만) 파랑이지 다른 지역은 다 빨강이니까 시장 당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동네에서 20년간 치킨집을 운영했다는 김모(55)씨도 “박형준 시장이 그래도 인지도는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출마해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 할 거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3번이나 했는데 이 정도라면 국민의힘으로 다시 바꿔보는 것도 방법 아니겠냐”는 이유에서다. 그는 달아온 선거 민심도 전했다. “근데 요새는 여당이랑 야당 지지자들끼리 싸워서 목욕탕도 안 간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과 함께 탈환을 노리는 경남에서도 민심이 적지 않게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찾은 김해 장유신도시에선 낮 시간에 유모차를 끄는 아이 엄마나 카페에서 수다를 떠는 학부모 등 3050 세대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다. 김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장유신도시는 부산이나 인근 창원 등지에서 모여든 젊은 층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다. 김해는 지난해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경남 지역에서 가장 큰 득표 차(5.08%포인트)로 승리를 거둔 곳이다. 하지만 박모(51)씨는 “이 대통령이 요새 X(옛 트위터) 정치하는 게 꼭 적폐몰이처럼 보인다”며 “정부여당을 견제해야겠단 생각이 강하다”고 했다.

경남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해 ‘보수 칠성’으로 불렸던 진주도 지방선거 예측을 놓고 미묘했다. 진주시 대안동 중앙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강모(52)씨는 “주변 상가가 1년 전부터는 60%가 공실 상태”라며 “문재인 정부 때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국제 통화기금(IMF) 사태 때보다 더 안 좋다”고 토로했다. 이에 비해 진주시 총무공동 일원에 조성된 진주혁신도시에서 만난 도봉식(41)씨는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면서 진주가 변했다”며 “예전엔 보수 대 진보가 9대 1이었다면 지금은 6대 4정도로, 보수세가 많이 옅어졌다”고 말했다.

자료: 부산언론인연합회·이너텍시스템즈 ※5~6일 부산 유권자 1008명 대상, 무선 가상번호 80%·유선 임의전화걸기(RD) 20% 혼용 자동응답조사(APSI),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4%.

부동산 재테크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임대주택 관리의
20년 전문!

부동산의 모든 상담
앰플러스 부동산, 비키리 브로커
Tel: 703-231-5572

메릴랜드, 디씨 임대 주택 면허,
주택검사 대행해 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 귀중한 재산을 보호해 드립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20년 연속 다이아몬드클럽 멤버
메릴랜드 주택 납성분 검사 인스펙터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1961년생 메디케어 가입 상담 및 신청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정권 프리미엄이냐, 현직 프리미엄이냐” 고심의 충청

대전·충남

대전 상인 “야당 시장 추진력 좋아”
천안 시민 “국민의힘 찍을 생각 없다”
세탁소 사장 “통합 땐 집값만 올라”
내포신도시 상인 “합치면 낫겠죠”

대전·충남 통합시장 적합도

단위: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강훈식 26.7

김태흠 15.6

이장우 11.6

양승조 9.3 박범계 6.2 허태정 6.1

박수현 5.0 장철민 2.5 장종태 2.4

박정현 2.3 기타후보 3.1 없음·모름 9.2



10일 충남 아산 온양온천시장에 장 보러 나온 시민들이 모여 들었다. 상인들은 “설 대목인데도 손님 없는 편”이라고 했다.

광주·전남

2년 전 총선 ‘지민비조 기류’ 변해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낫겠지”
혁신당 합당 놓고 “언젠간 해야지”
행정통합엔 “선거 전은 너무 촉박”

광주·전남 통합시장 적합도

단위: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민형배 21.0

김영록 19.0

강기정 9.0

신정훈 8.0 주철현 6.0 이개호 4.0

이병훈 4.0 정준호 2.0 없다 14.0

모름·응답거절 13.0



10일 전남 무안 남악신도시에 행정통합을 염원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위문희 기자

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이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람이 오면 뭐라도 더 내려오지 않겠소.”

광주·전남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행정통합을 두고는 지역별 이해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모습도 엿보였다. 양동시장에서 광주송정역으로 향하는 길에 이용한 택시 운전사 정동섭(30)씨는 행정통합 자체에는 찬성한다고 했다.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청년 일자리가 너무 없다. 작년에 광주시 인구도 140만이 깨지지 않았느냐(지난해 7월 기준 139만8000명)”면서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지고 보면 전남은 어르신이 대부분인데, 너무 전남에만 퍼주면 결국 손해 보는 건 광주 아닌가요.”

광주에서 KTX로 30여 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전남 목포에서도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감지됐다. 목포 토박이 김광실(74)씨는 “광주가 우리를 진짜로 안아줄까요?”라며 고개를 갸웃했다. 목포와 인접한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전남도청 등이 이전한 지 20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갈수록 주변 상권이나 아파트 공실률이 커지고 있다. 이유에서다.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버리겠소”라고 했다. 이날 오후 목포 역 앞에서 귀가하는 버스를 기다리던 박모(44)씨도 “국가가 인센티브 준다 하면 받아야죠. 여긴 개발도 덜 돼 있는 데”라면서도 “지방선거 전 통합은 너무 촉박하다. 우리나라 맨날 국가주도식인 게 문제”라고 말했다.

자료 : KBS 광주방송총국·한국갤럽 ※8~9일 광주·전남 유권자 1609명 대상,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무선자동응답조사(ARS),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4%포인트, 응답률 14.1%.

주말인 지난 8일 설 대목을 맞은 대전 동구의 중앙시장은 이른 오전부터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으로 북적였다. 시장에서 가장 붐비는 메인골목 초입인 5번 게이트 앞에 야당이 걸어놓은 큼지막한 현수막이 한 눈에 들어왔다. ‘같은 대한민국, 다른 통합법’ 2년 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불씨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당겼으나, 현재 논의의 주도권은 정부여당이 쥐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었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여야 어느 한 편을 들기보다 충청권이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돼왔다는 이야기로부터 꺼냈다. 중앙시장에서 50년 넘게 의류점을 지켜온 최재호(68)씨는 난로 앞에서 손을 비벼며 말했다. “대전엔 큰 공단 같은 게 없잖아요. 서울하고도 1시간 거리라 호남이나 영남보다 월등한데도 참 많이 낙후돼 있다고 봐요.”

인근에서 30년째 이불가게를 운영해온 50대 박모씨도 “통합이 실제로 된다면은 광주·전남보다 안 부족하게 해줘야 한다”며 “거기는 같은 당이라고 더 행여주고, 대전은 (지자체장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차별하면 말이 됩니까”라고 했다. 이번 통합논의 과정에서 조차 다른 지자체에 밀리면 안 된다는 뉘앙스가 강했다.

그래서 일까. 충청권에선 오는 6·3 지

방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의 ‘정권 프리미엄’을 선택할지 아니면 ‘현직 프리미엄’을 안은 야당 자치단체장을 한 번 더 지지할지 고심하는 기류가 엿보였다. 충청권은 역대 선거마다 대세에 따라 표심이 출렁이는 대표적인 ‘스윙보터(부동층 유권자)’ 지역으로 꼽혀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뒤 이듬해 지방선거에선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엔 모두 국민의힘으로 돌아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충청권 자치단체장을 한 곳이라도 더 틸환하려는 민주당과 한 곳이라도 덜 빼기려는 국민의힘의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3대째 중앙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해왔다는 이상훈(47)씨는 “정치 둘 아가는 건 1도 관심이 없다”면서도 이장우 대전시장의 추진력에 대해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시장을) 바꿔봤더니 추진력은 좋아요. 그전에 못 했던 거 뭐야, 베이스볼드림파크 완공한 것도 그렇고, 꿈들이 마스코트 다시 살린 것도 잘했다”고 했다.

이와 달리, 중앙시장 면거리 골목에서 만난 정모(36)씨의 관심은 여전히 인사로 옮겨가 있었다. 정씨는 “저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대전은 아니고 충남 아산 사람이긴 한데”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충남·대전 통합시장 출마 후보군만 10명 가까이 거론되지만, 강 실장이 출마만 결심하면 곧바로 지역 주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

었다.

이를 뒤인 10일 찾은 충남 천안과 아산의 민심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천안 중심가인 동남구 신부문화거리에서 만난 허모(57)씨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뽑았지만,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할 생각이 없어졌다고 했다. 그렇다고 민주당을 뽑을 생각을 굳힌 것도 아니었다.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속내도 복잡했다. “통합하면 우리는 손해죠. 솔직히 충청권에선 대전하고 천안·아산은 잘 나가잖아요. 이제 세금 걱으면 같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잘 지켜봐야죠.”

천안과 인접한 아산의 원도심인 온양온천시장에서 수십년간 세탁소를 운영해온 70대 부부도 행정통합에 대한 마뜩잖은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가게 안에서 다림질을 하던 남편 하모(76)씨는 “이런 소도시는 반대할 수 밖에 없어. 세금만 올라가지 더 살기 좋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옆에서 부인 이모(75)씨도 “통합하면 집값만 올라가지. 1만원 내던 걸 2만원 내라고 하면 그게 큰일이지”라고 거듭했다. 행정통합은 기대보단 부담에 가깝다는 취지였다.

충남의 유일한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는 위상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침체된 지역 경기를 조금이나마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절박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자료 : 대전일보·리얼미터 ※6~7일 대전·충남 유권자 2004명 대상,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무선자동응답조사(ARS),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4%포인트, 응답률 6.7%.

광주·전남

2년 전 총선 ‘지민비조 기류’ 변해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낫겠지”
혁신당 합당 놓고 “언젠간 해야지”
행정통합엔 “선거 전은 너무 촉박”

광주·전남 통합시장 적합도

단위: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민형배 21.0

김영록 19.0

강기정 9.0

신정훈 8.0 주철현 6.0 이개호 4.0

이병훈 4.0 정준호 2.0 없다 14.0

모름·응답거절 13.0

광주 지역 낫 최고기온이 모처럼 영상권을 회복한 지난 9일. 주말 사이 도로 곳곳에 쌓였던 눈더미도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22대 총선 당시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기조가 뚜렷했던 광주·전남의 민심은 2년 전과 달리 이제명 대통령에 후한 평가를 보내고 있었다. 호남 최대 전통시장인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만난 정모(64)씨는 “반명(반이재명) 정서가 아예 없다고는 못 허요. 그래도 우리 아내가 사우나 가보면 다들 이제명이 잘한다고 그런단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최근 범여권을 뒤흔든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논의에도 지지 의사를 보냈다. “언젠가는 합당해야지. 한 뿌리잖아요.”

그러나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얘기가 꺼내자 다들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 저래 불만인 마음들을 털어놓았다. 시장 초입 식당에서 친동생과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김방수(74)씨는 “강기정 광주시장은 입만 야물었지, 광주에다가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지지하고 싶어. 해남으로 (국가AI 컴퓨팅센터 등) 전부 다 확정이 됐잖아요”라고 덧붙였다.

동생 형수(70)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 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두 절약을 한곳에서



2025

A

Return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지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챕터 7·챕터 13·학자금융자 감면
서브챕터 5·챕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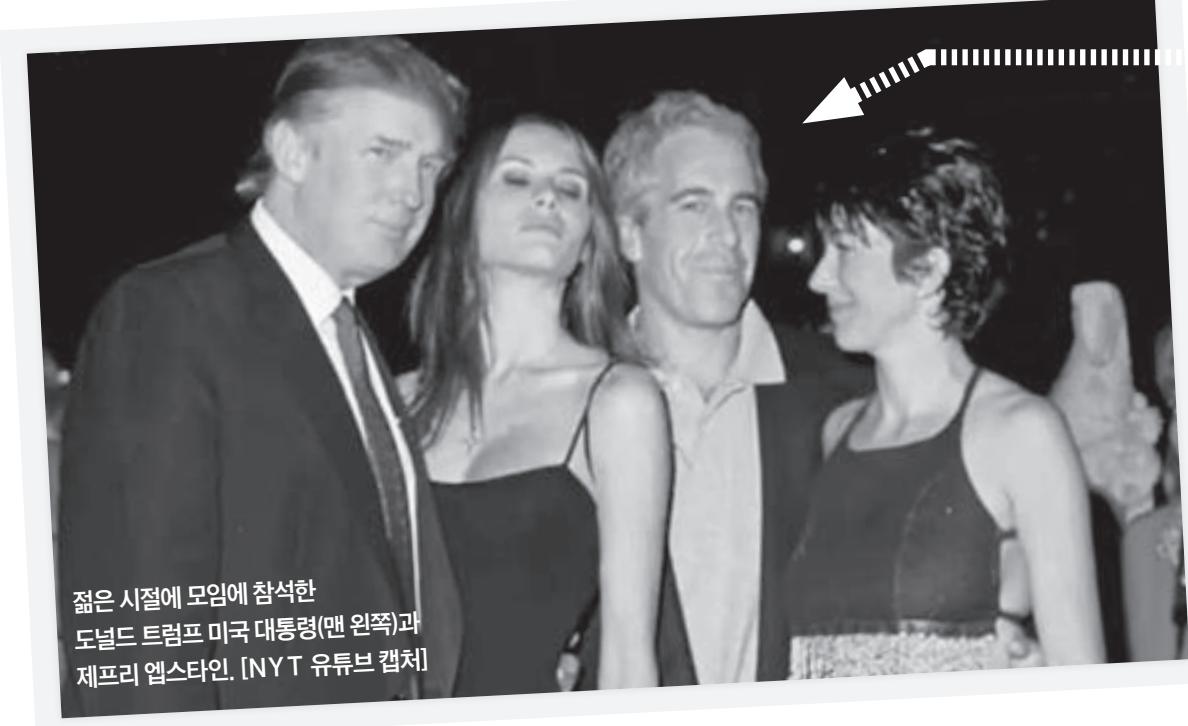


죽은 엡스타인, 산 셀럽들 벌벌 떨게 하는 이유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엡스타인 파일의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성범죄자인 제프리 엡스타인의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20년 전 '모두가 (그의 범죄를) 알고 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법무부가 추가로 공개한 엡스타인 수사 관련 파일을 통해서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는 2006년 7월 당시 플로리다주 팜비치 경찰서장이었던 마이클 라이터에 전화를 해 "당신이 그를 막아줘서 정말 다행이다. 모두 그가 이런 일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엡스타인과 함께했던 적이 있다. 그 상황을 보고 바로 빠져나왔다"고도 했다. 라이터 통신은 "엡스타인의 죽음을 선거에도 활용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부메랑을 맞고 있다"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① 과거 경찰 증언에 관한 트럼프 측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공개되자 백악관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끝낸 과정은 정직하고 투명했다. 2006년 전화 통화는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과의 연루설이 제기될 때마다 그 와 과거 친분이 있었지만, 그의 범죄 사실이 알려지기 전 관계를 끊었으며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라이터 전 서장은 마이애미 헤럴드에 "(트럼프 발언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②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엡스타인의 죽음을 활용했는데...
사실 엡스타인의 석연치 않은 죽음을 활용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 당시 관련 음모론을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했다. 그의 죽음 배후에 민주당 내 비밀 권부인 '딥스테이트'가 있고, 조 바이든 당시 행정부가 이를 들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엡스타인과 교류한 인사 명단 등을 공개하겠다는 약속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해 7월 미 법무부는 엡스타인의 사인은 자살이고 명단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진영을 불문하고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의회에서 통과한 '엡



젊은 시절에 모임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맨 왼쪽)과
제프리 엡스타인. [NYT 유튜브 캡처]

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라 관련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파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분을 유추할 수 있는 사진과 이메일 기록 등도 담겼다.

③ 엡스타인과 연루된 유명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엡스타인 파일에서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공개된 파일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미 정계 거물은 물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재계 유력 인사들의 이름도 포함됐다. 미국 뿐만이 아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전 왕자, 스웨덴의 소피아 왕자비, 영국의 피터 맨델슨 전 산업 장관 등도 연루설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

외신들에 따르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전용기 '로리타 익스프레스'를 여러 차례 이용했다. 신원 미상의 여인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됐다. 논란이 증폭되자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부부는 엡스타인 파일 관련 미 하원 감독위원회 조사에 출석해 증언하기로 했다.

최근 신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 홍보담당자가 엡스타인에게 보낸 이메일 속 '2010년 크리스마스 모임 참석 예정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워드 러트니 미 상무장관과 일론 머스크는 엡스타인 소유 섬 방문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빌 게이츠도 엡스타인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공개된 파일에

는 게이츠가 여성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포함됐다. 엡스타인이 2013년 작성한 이메일 초안에는 '빌 게이츠가 러시아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 성병에 걸렸고, 이를 당시 아내에게 숨기기 위해 항생제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이자 현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전 왕자는 엡스타인 사건에 연루되며 왕자 칭호와 작위를 박탈당했다. 2010년 엡스타인을 벼킹엄궁으로 초대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 공개되면서다. 앤드루 전 왕자는 이메일에서 "궁에서 저녁을 먹으며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엡스타인이 20대 러시아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자 "기쁘다"고 답한 정황도 담겼다.

세계적 석학 중 하나로 꼽히는 언어학자 뉴 촘스키도 엡스타인과의 친분이 드러났다. 2019년 엡스타인이 변호사 겸 언론 대응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엔 그가 촘스키로부터 받은 조언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촘스키는 엡스타인에게 "각종 논란을 무시하라"고 조언했다. 엡스타인에게 아파트 구입 등 재무 관련 조언을 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④ 엡스타인은 어떻게 성공했나
전 세계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쌓아온 엡스타인은 본래 사립학교 교사였다. 1976년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에 입사하면서 금융계로 진출했다. 베어스턴스에서 승진 가도를 달리던 그는 1981년 독립해 10억 달러(약 1조 4500억 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 대상 투자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막대한 부를 축적해 뉴욕

만해튼 저택, 전용기 나이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내 본인 소유 섬 등 호화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가 됐다.

⑤ 엡스타인 범죄가 드러난 계기는

성공한 금융인으로 이름을 알린 그의 실체가 드러난 건 2005년이다. 한 14세 소녀의 부모가 그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면서다. 피해자는 30여 명에 달했고 대부분 엡스타인 소유 저택에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엡스타인은 2006년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및 매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2008년 6월 그는 플리바케닝(유죄·형량 협상)을 통해 중범죄 기소를 피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만 인정돼 18개월 형량을 선고받았다. 복역 기간에도 낮에는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 출소도 앞당겨져 2009년 7월 출소했다.

⑥ 출소 이후 엡스타인의 삶은

성범죄 이력에도 불구하고 엡스타인의 화려한 생활을 지속했다. 그의 핵심 자산은 돈이 아닌 '관계'였기 때문이다. 그는 1980년대부터 초부유층 고객들을 위해 도난당한 자산을 되찾아주는 등 곳을 도맡아 하며 신뢰를 쌓았다. 또 '뉴욕 예술 아카데미(New York Academy of Art)' 이사회에 합류하는 등 유력 인사들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는 통로를 끊임없이 찾아 나섰다. 엡스타인은 부를 이용해 권력자들이 원하는 '환경'을 제공했고, 이들의 어두운 사생활은 곧 약점이 돼 엡스타인에 엄청난 '권력'을 안겨줬다. 인맥이 늘어날 수록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마침내 그는 권력자들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위치에까지 올라섰다.

⑦ 엡스타인이 또 체포되고 사망한 경위는

제프리 엡스타인 Jeffrey Epstein

- 출생: 1953년 1월 20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
- 사망: 2019년 8월 10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구치소)
- 1970년대 초: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
- 1976년: 투자은행 베어스턴스 입사
- 1981년: 베어스턴스 퇴사 후 개인 투자회사 설립
- 1990년대~2000년대: 초고액 자산가 대상 자산관리자, 헤지펀드 매니저로 활동

'엡스타인 사건' 연루 주요 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빌 게이츠 MS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하워드 러트니 상무장관,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지명자, 뉴 촘스키 교수 등

유럽 영국 앤드루 전 왕자, 영국 피터 맨델슨 전 산업장관, 프랑스 자크 랑 전 문화장관, 스웨덴 소피아 왕자비, 노르웨이 토르비에른 앤드레스온 전 총리, 노르웨이 메테마리트 왕세자빈, 슬로바키아 미로슬라우 라이처크 전 부총리, 브르네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총재 등

2019년 7월 미 연방수사국(FBI)과 뉴욕 경찰에 의해 또다시 체포됐다. 당시 미국 사회에 크게 퍼진 '미투(MeToo)' 운동 영향이 커졌다. 피해자들의 새로운 증언이 잇따랐고, 여론의 압박으로 FBI는 재수사에 착수했다. 비로소 엡스타인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온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다. 본인 소유 섬에서의 성범죄 등이 밝혀지면서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착취 및 성매매 혐의 등으로 체포돼 뉴욕 연방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엡스타인은 체포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구금 중 사망했다. 당국은 그가 자살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핵심 피의자가 재판에 서기 전 사망해 사건이 종결되며 미국 사회 전반에 거센 의혹이 일었다. 엡스타인이 유력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 관계를 맺어왔기에 각종 음모론이 나왔다.

⑧ 러시아 간첩설도 있는데...

영국 텔레그레프는 최근 미 법무부가 지난달 말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파일을 분석해 엡스타인이 러시아를 위해 활동한 간첩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매체는 공개된 파일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스크바가 언급된 문서가 수천 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여기엔 엡스타인이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엡스타인이 미디어 사업가 로버트 맥스웰을 통해 옛 소련 정보당국에 포섭됐으며, 그의 딸 길레인이 엡스타인의 연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길레인은 엡스타인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익재·전민구 기자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국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 임상경력 50년
- * 각종 보험 취급
- * VA, MD, DC 면허 소지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 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김철민

함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 예촌 앞 빌딩 3층



jglconstruction.com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센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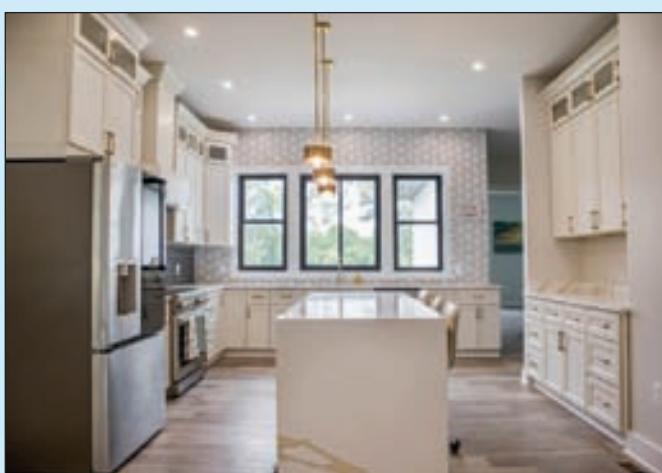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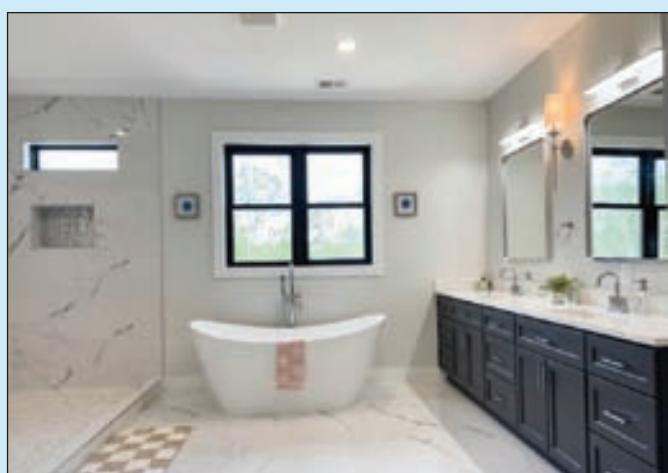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우리말 바루기

소고기·쇠고기

한우는 '소고기' '쇠고기' 어느 것으로 불러야 할까?

'소고기/쇠고기' '소갈비/쇠갈비' '소곱창/쇠곱창' 등으로 언론 매체도 저마다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쇠고기'가 표준어이고 '소고기'는 잘못된 말이라 여기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과거에는 '쇠고기'만 표준어로 인정하고 '소고기'는 사투리로 취급해 '소고기'를 오랫동안 쓰지 않았다. 그러나 1988년 맞춤법을 개정하면서 둘 다 표준어로 인정했다(복수표준어). 따라서 '쇠고기' '소고기' 모두 표준어로, 어느 것을 써도 문제가 없다.

'쇠'는 '소의'의 준말이고, '소의 고기'가 '쇠고기'다. 고기는 소의 부속물이므로 '소의 고기'라 부르던 것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쇠고기'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고기'라고도 많이 쓰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복수표준어로 인정했다. 그렇다고 '소'나 '쇠'를 아무 데나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의 부속물인 경우에는 '쇠'와 '소'를 함께 쓸 수 있으나 그 밖에는 '소'만 사용된다.

소의 부속물인 '소갈비·소가죽·소기름·소머리·소뼈' 등은 '쇠갈비·쇠가죽·쇠기름·쇠머리·쇠뼈' 등으로 함께 쓸 수 있으나 부속물이 아닌 '소달구지·소도둑'은 '쇠달구지·쇠도둑'으로 쓸 수 없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①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알벗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자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문화산책

전 세계가 함께 부를 아리랑



장소현
시인·극작가

'방탄소년단' 덕분에 한민족의 노래 <아리랑>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새 출발의 상징으로 <아리랑>을 앞세워 정체성을 강조한 것은 참 고맙고 현명한 선택이다. 이제 세계 젊은이들이 뜨거운 열기로 <아리랑>을 함께 부르는 장면을 상상하면 벌써 설레고 두근거린다.

한편, 올해가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 개봉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라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한국영화 초창기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걸작으로 평가되는 <아리랑>은 1926년 10월1일 단성사에서 개봉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며, 일제강점기 억압받던 백성들의 민족정기를 불러일으키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나운규는 이 영화의 감독, 주연배우, 제작, 각본을 담당했고, 주제가 <아리랑>의 가사도 지었다. 본조(本調)아리랑 또는 경기 아리랑으로 알려진 전통민요에다 나운규 감독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새로 창작한 가사를 붙였다. 그리고 이 노래가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과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의 대표 아리랑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아리랑은 우리 겨레의 정서와 한과 기쁨, 그리움 등을 강하게 담은 민요로,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민족의 영혼이다.

아리랑에 미쳐서 평생 아리랑을 연구한 김연갑씨는 이렇게 선언한다. "아리랑은 통곡이다.

피다, 분노다. 아리랑은 짓발이다. 이정표다. 아리랑은 한없는 그리움이다. 아리랑은 이 땅에 있는 것 중 거의 유일하게 국산이다. 아리랑은 이 땅의 소리다. 아리랑은 참말이다. 아리랑은 바로 민족의 힘이다."

현재 남북한을 통틀어 약 60여 종, 3600여 수의 아리랑이 전해지고 있으며, 소련이나 일본, 만주 등 우리 겨레가 사는 곳 어디에나 아리랑이 있어,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아리랑이 전해오고 있는데, 정작 <아리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다. 20여 가지의 다양한 학설이 있을 뿐이다. 참 신기한 일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아리랑은 강원도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등으로 지역마다 특색 있는 곡조와 가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아리랑은 단순히 과거의 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롭게 재생산되어 세계인과 소통하는 '현재진행형' 문화유산이다. 조용필의 <강원도 아리랑> 하준화의 <영암 아리랑>

서유석의 <홀로 아리랑>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아리랑….

클래식에서도 지난 2008년 2월,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니가 역사적인 평양 공연에서 앙코르곡으로 연주한 <아리랑 환상곡>은 지금 다시 들어도 눈물이 난다. 아리랑이야말로 남과 북을 뜯을 수 있는 우리 노래라는 이야기다. 북한의 최성환이 편곡한 이 작품은 한국에서도 더러 공연된다.

아리랑은 노래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민족 정서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김산의 <아리랑>,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 LA 한인사회에서 공연된 4·29 폭동을 주제로 한 연극 <민들레 아리랑> 등등….

아리랑은 우리 겨레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민들레처럼 피어난다. 그렇다면, 이 미국 땅에서도 나성 아리랑, 뉴욕 아리랑, 재미교포 아리랑 같은 아리랑이 나올 법하지 않은가… 그런데, 아쉽게도 전해지는 것은 <상항 아리랑> 한가지뿐이다. 상항(桑港)은 샌프란시스코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뽕 따리 가려거든 산으로나 갈 것이지/ 수만 리 갓가로 와 봉변을 당하나'

아리랑 이야기를 하는 김에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아리랑을 소개하고 싶다. <삼필선 아리랑>이다.

'사발그릇 깨어지면 두 세 쪽이 나는데/ 38선 이 깨어지면 한 땅에 둘 되나네'

J 네트워크

'조선 탄광'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김현예
도교 특파원

"어머님, 저는 지금 일본 야마구치현이라는 곳에서 탄광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밑으로 쟁도가 연결돼 있고 바다 위를 지나는 어선의 통통통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정말로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꼭 탈출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제강점 시절이던 1942년 2월 3일 오전 9시 30분경, 해저탄광인 조세이 탄광에서 수몰 사고가 발생했다. 조선인 136명과 47명의 일본인이 물으로 나오지 못했다. 당시 사고로 희생된 김원달씨가 어렵사리 사고 전 고국에 있는 모친에게 보낸 편지엔 무장한 경비원이 지키는 삼엄한 포로수용소 같은 당시 상황이 묘사돼 있었다.

은폐에 급급했던 회사가 사고 뒤 간구를 던져버리면서 '조선 탄광'으로 불렸던 이곳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다. 침혹한 조세이 탄광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듣 이는 우베시 향토사학자이자 고교 역사 교사인 야마구치 다케노부. 1976년 우베지방사연구에 사고 기록을 꼼꼼히 남겼다.

시민단체(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 이하 새기는 모임)가 생겨난 건 그로부터 15년 뒤의 일이다. 이들은 그로부터 35년간 탄광 혼적인 환기구(pier) 보존, 주모비 건립에 이어 유해 수습과 반환 운동에 나서고 있다.

새기는 모임 주도로 한·일 유족이 참가한 가운데 추도식이 이뤄지던 지난 7일 정오경 비보가 날아들었다. 기존에 확인된 간내 유골 수습에 나선 57세 잠수사 웨이수씨가 잠수 30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것이다. 교통비도, 보수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였다. 전날 회

견에서 위험성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같은 디아버 기술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매우 감명받았다"고 담담히 참가 이유를 밝혔던 그였다. 그의 사망 소식은 빠르게 전파를 탔다. 지난해 8월 두개골 등 유해 4점을 찾아낸 데 이어 전날 DNA(유전자) 감식에 필요한 치아가 확인되는 두개골 1점 수습 직후에 벌어진 참사였다. 새기는 모임은 오는 11일 까지 진행하려 했던 일본인 디아버와 해외 디아버들의 조사 작업을 중단하고 애도에 들어갔다.

지난달 한·일 정상이 DNA 감정 추진을 약속하면서 번졌다 기대감은 눈물로 바뀌고 있다. 귀중한 한 명의 생명이 희생된 지금, 조세이 탄광은 과거가 아닌 현재형의 문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오랜 시간 잊혀져 있던 희생자들을 인정하고 그 유해를 찾아내는 일은 우리 사회가 인간의 죽음을 어디까지 기억하고 책임져야 하느냐는 묵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큅스토어, 세탁소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완영 합니다! (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밍 구합니다.



443-759-9798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MERCY
CHIROPRACTIC

26년 임상경험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멀리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채희동

상표/특허/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Q 저작권 침해하면 얼마까지 물어야 하나

▶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정손해 배상액은 어느 정도 범위로 산정되나.

▶답=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법원이 일정한 법적 기준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정손해배상액은 저작물 1개당 750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에서 책정된다. 무과실 침해의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감액될 수 있으며, 고의적 침해의 경우에는 최대 15만 달러까지 상향될 수 있다. 연방법원은 침해자

의 고의성, 침해로 인한 이익 또는 비용 절감 여부, 저작권자의 실제 또는 추정 손해, 향후 침해 억제의 필요성,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의 당사자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 범위가 넓어 예측 가능성이 낮고, 경우에 따라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최근 판례를 보면 특히 침해자의 수익이 제한적인 사건에서는 배상액이 침해의 경제적 현실과 과도하게 고리되지 않도록 조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손해배상 산정에 있어 비례성과 공정성이 점차 중시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건이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사례에서는 건당 약 1000달러에서 4000달러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 패션 디자인이나 예술 작품과 같은 경우에는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범위에서 인정되는 사례들이 많다. 여러 개의 저작물이 동시에 침해된 경우에는 각 저작물당 법정손해배상액이 단일 저작물만 침해된 경우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라이선스 비용을 기준으로 법정손해 배상액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해당 라이선스 비용의 약 두 배에서 세 배 수준에서 배상액이 결정되는 사례

가 많다. 과도한 배수 적용은 최근 들어 점차 억제되는 추세다.

고의성 여부 역시 여전히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최근 판결에서는 고의 침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정 상한액인 15만 달러에 근접한 배상액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15만 달러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조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처럼 비례성과 공정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 최근의 흐름은 저수익·소규모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향후 이러한 사건을 대응하고 처리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Q OPT 있으면 괜찮다? 많은 부모들이 놓치는 결정적 변수

▶문= OPT가 있으면 취업은 가능한 것 아닌가. 영주권을 꼭 미리 해야 하는지, 지금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 OPT 제도만 놓고 보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당장 체류에도 문제 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영주권은 필요해질 때 준비해도 되는 문제처럼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영주권 수속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그 긴 시간이 OPT 일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영주권이 없어도 OPT는 가능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OPT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일 뿐, '취업을 보장해 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OPT 인력은 1년에서 3년 후 다시 비자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인력에 불과하다.

OPT 기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남은 체류 기간과 현실적인 수속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할 경우 노동허가서 접

수 이전 단계에서만 약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전체 수속 기간은 평균적으로 4년 이상을 예상해야 한다. 즉 OPT 기간에 맞춰 시작하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던 계획이 실제로는 매우 빠듯해지거나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많다. OPT 이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 H-1B 제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현실적으로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 H-1B를 취득하기는 훨씬 어려워졌다.

H-1B 선발 방식은 단순 추첨 중심에서 연봉 수준과 직무 전문성을 보다 강

하게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여기에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까지 들어나면서, 고용주들 역시 꼭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면 H-1B 스폰서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영주권은 언제 준비해야 미국에서 커리를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 단정적으로 몇 년이 걸린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안전한가'를 아는 것이다.



강지니

노동법·변호사

Q '소프트웨어 직군'이라면 무조건 오버타임 제외? 오해 풀다

▶문= 회사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오버타임 임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답=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분류되면 오버타임 임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단순히 컴퓨터 관련 업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임금 기준이다. 2025년 1월 1일부로 캘리포니아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분류되기 위한 임금 기준은 연봉 11만8657달러 43센트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9888달러 13센트, 시급으로 환산하면 56달러 97센트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해당 임금 기준을 전년도 10월에 공식 웹페이지 (<https://www.dir.ca.gov/oprl/ComputerSoftware.htm>)를 통해 발표한다.

둘째는 업무 내용이다. 임금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업무 시간의 50% 이상을

법에서 정한 특정 업무에 사용해야 한다. 컴퓨터 관련 용어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캘리포니아 노동법 섹션 515.5(a) (2)에 명시된 업무 내용을 그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무 시간의 과반을 다음 중 하나에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사용자와의 협의를 포함한 시스템 분석 기법과 절차를 적용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의 기능적 사양을 결정하는 업무다. 2) 사용자 또는 시스템 설계 사양에 근거해 컴퓨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프로토타입 포함)을 설계, 개발, 문서화, 분석, 생성, 테스트 또는

수정하는 업무다. 3) 컴퓨터 운영체제를 위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설계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문서화, 테스트, 생성 또는 수정하는 업무다.

셋째는 재량권 및 독립적 판단 여부다. 앞선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독립적인 판단과 재량권을 행사해야만 오버타임 임금이 면제된다.

이는 타인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스스로 다양한 가능성과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단순히 정해진 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독점 Burke

싱글홈

방4, 화3 1/2, 2 Car Garage,
집 전체 리모델링, 새 지붕, 새 HVAC 시스템,
새 창문, 새 DECK,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모든 화장실 업데이트

\$975,000



Sold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방3, 화2 1/2,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Stainless Steel Appliances,
새 페인트, 집 전체 리모델링,
교통 편리

\$510,000



Sold



독점 Centreville 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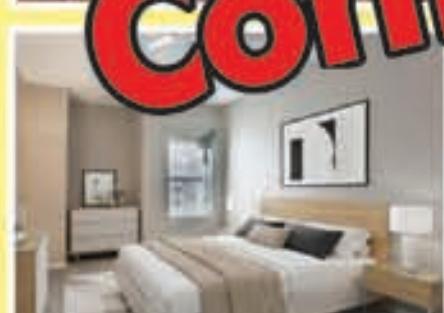
콘도

방2, 화2, 업데이트하고 잘 관리된 밝고 환한 콘도,
부엌 (Granite Countertop, SS Appliances,
고급 캐비넷), 업데이트한 화장실들, 넓은 거실,
넓은 발코니, 롯데마트 가까움

\$315,000



Contract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Springfield 타운홈

방3, 화3 1/2, 1 Car Garage
집 전체 업그레이드, 엔드 유닛,
새 페인트, 새 Deck,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최근 에어컨, 헤팅, 지붕, Appliances 모두 교체

\$699,900



Sold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SHK FIRM

ATTORNEYS-AT-LAW

합동 법률 사무소 MD·DC·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 / 휴직보상
- 민사소송
- 비지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지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MD, DC, V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Baker Botts, LLP
NY, MD



폴 킴 변호사
PAUL W. KIM, JD. MPH.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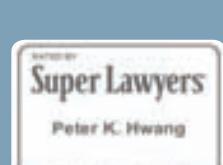
대니엘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 Clemson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Baltimore School of Law, JD

약력

Eccleston & Wolf
MD

SHK FIRM
ATTORNEYS-AT-LAW
www.shkfir.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주식과 금이 같이 간다… 투자 공식에 금이 간다

투자자산 변신하는 금

금, 주식 하락시의 안전자산인데 작년 이후 위험자산 동조화 뚜렷 주요국 돈 풀며 유동성 흘러 넘쳐 중국 아줌마 투자자도 '콜드 러시'

전통적으로 금은 주식이 떨어질 때 쟁여두는 '안전 자산'으로 통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식과 금값이 함께 뛰는 낮선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시장에선 금이 '투자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9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금 선물은 트로이온스당 5079.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값은 지난달 30일 매파(통화 긴축 선호) 성

향의 케빈 워시가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잠시 하락했지만, 곧바로 반등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금값은 지난해 64% 급등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이날까지 17% 상승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금값과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의 상관관계는 2021년 0.02에서 지난해 0.77로 크게 높아졌다.

김영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전통적으로 금은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수익률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경기 하락기에 포트폴리오의 방어막 역할을 수행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점차 주식 등 위험자산과 동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

적했다.

시장에선 이런 낮선 동행의 배경으로 유동성 확대, 즉 시장에 넘쳐 나는 돈을 짓는다. 지난해 한국은 물론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이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었다. 이 자금이 주식과 금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광의통화(M2)는 지난해 10.8% 증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흥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 매입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금 매입을 확대한 상위 5대 중앙은행은 중국·폴란드·튀르키예·인도·아제르바이잔

으로 모두 신흥국이다.

과거 중앙은행은 금값이 오르면 금 매입을 축소하거나 매도로 전환했지만, 최근에는 추세적으로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은 지난 달 말 기준 7419만 온스로, 3695억 8000만 달러(약 541조원)에 달한다. 한 달 만에 501억 3000만 달러(약 73조원)나 늘었다.

금 자체가 투자 자산이 돼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대거 출시되면서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어서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운용사가 ETF용으로 보유한 금은 전년보다 801t 늘어난 4025t를 기록했다. 금액으

로 따지면 지난해만 890억 달러(약 130조원) 불어났다.

중국의 투자 열기도 이를 거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금·은 광풍 뒤에 있는 중국의 아줌마 투자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금속 시장 급등의 배경에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투자자들은 지난해 골드바와 금화를 약 432t 사들였다. 전년 대비 28% 급증한 수치로, 전 세계 금 구매량의 3분의 1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금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투기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시작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장서윤 기자

불확실성 커진 가전사업… LG 돌파구는 '로봇'

글로벌 가전업체 수익성 악화 전망
LG "상업·산업용 로봇 영역 확대"

글로벌 가전업체들이 수요 정체와 중국 기업의 거센 추격 속에 성장 한계에 부딪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가전 제조사들은 올해도 실적 정체 또는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영상디스플레이(VID)·생활가전(DA) 사업부가 각각 1조 4980억, 2조 160억원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유안타증권도 미국 가전을 대표하는 월풀 매출이 지난해 15조 6892억에서 올해 15조 6210억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웨덴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일렉트로룩스도 저가 경

쟁 심화 속에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에 나섰다.

국내에선 '가전 명가' LG전자가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가전 부문에서는 '가성비(가격대비 성능)' 제품군 강화와 프리미엄 전략을 병행하고, 인도·멕시코 등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냉난방공조(HVAC)와 자동차 전자장비 등 기업 간 거래(B2B) 비중도 빼르게 높이고 있다.

브라운관 시대를 이끈 일본 소니는 지난달 중국 TCL 51%, 소니 49%의 지분구조로 TV 합작회사를 만들며 사실상 TV 사업과 결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소니는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은 물론 '케이팝 데몬 헌터스' 제작에 자본을 투입하며 '엔터테인먼트 종합상사'로 정체성 변신을 꾀하고 있다.

LG전자도 미래 먹거리 고민이 깊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LG반도체 사업 철수는 여전히 빼아프다. 실제로 2002년부터 지난 2월까지 시가총액 흐름을 보면 LG반도체와 현대전자가 합병해 탄생한 SK하이닉스는 약 416배(610조 7940억원), 삼성전자는 약 19배(938조 8546억원) 성장한 반면 LG전자는 약 3배 증가(16조 1583억원)에 그쳤다.

LG가 성장 동력으로 점찍은 분야는 '로봇'이다. LG전자는 미국 소비자가 전쇼(CES 2026)에서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를 공개했다. 류재철 LG전자 사장은 "가정용을 넘어 상업용·산업용 로봇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봇 회사'로의 변신 기대감에 지난 11일 LG전자 주가는 전일대비 23% 급등하기도 했다. 김수민 기자

위고비 돌풍에 설탕 가격 뚝

5년 4개월 만에 최저치 선진국 중심 수요둔화



위고비의 인기에 단맛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설탕 가격이 급락했다.

지난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돌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설탕 선물 가격이 5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욕 선물거래소에서 원당 선물 가격은 1파운드당 14센트 아래로 떨어졌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국내를 포함해 선진국의 설탕 수요둔화가 원당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사용이 증가하면서 단맛에 대한 선호가 근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위고비는 사람이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글루카곤 유사펩티드-1(GLP-1)' 호르몬 수용체를 활성화하면서 식욕을 떨어트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만치료제 사용이 늘수록 설탕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영국계 금융서비스업체 마렉스의 구르데브 길 분석가는 "최근 설탕 소비는 업계의 히트 차를 정도로 빼르게 감소하는 추세"라며 "선진국 설탕 소비는 이미 수년간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비만치료제의 등장 이후에는 소비 패턴에 정말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밖 첫 반도체 연구기지, 한국에 세운 램리서치

(벨로시티랩)

아처 회장이 이끄는 '반도체 강자' 5~10년 뒤 양산될 신기술 찾을 것" "반도체 산업에선 뒤처지는 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쫓아와도 더 빼르게 움직이면 앞설 수 있습니다."

지난 1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팀

아처(사진) 램리서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강조한 키워드는 단연 '속도(Velocity)'였다. 램리서치는 반도체 제조의 핵심공정인 식각과 증착 분야에서 세계 최선두 장비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은 회사 역대 최고치인 206억

달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과 온라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아처 회장은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기업은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고, 신속하게 움

직이는 이들"이라며 "속도의 중요성은 혁신부터 생산력 증대, 공급망 개발까지 모든 부문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램리서치의 경우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공급망을 동시에 가동하며 '운영 속도(Operational Velocity)'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 램리서치의 '속도전'을 뒷받침할 최적의 전초기지 중 하나다. 램리

서치는 2022년 경기도 용인에 최첨단 연구개발 시설인 코리아테크놀로지센터(KTC)를 만들었는데, 최근 새롭게 '벨로시티랩'을 열었다. 신소재와 공정 솔루션을 탐색하는 이 시설을 미국 외에 만든 건 한국이 처음이다. 아처 회장은 "KTC가 5년 내 양산에 들어갈 솔루션을 개발한다면, 벨로시티랩은 5~10년 후에 양산될 획기적인 신기술 유형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광고비는 쓰는데, 매출은 그대로인가요?"

구글에서 안 보이면,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 구글 검색 & 지도에서 고객이 먼저 찾게 만들고
- 광고비 낭비 없이 실제 문의와 방문으로 연결하고
- 매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듭니다.

intelisystems
Think eMarketing

"2주 안에 새고객과 매출 향상을 경험을 하세요!"



지금 연락주세요 - 무료로 광고제작 지원
(시운도자 확인)

571-506-0220

sales.intelisystems.com/k1

구글 지도 랭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소셜미디어, 유튜브 광고,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웹사이트 제작

www.intelisystems.com

호랑이를 키웠나… ‘AI의 역설’에 보험·운용사도 떤다

미국 증시 흔드는 AI 폭풍

‘급성장 AI, 기존 사업 잠식하나’
SW·자산운용 업계 등 불안 확산
골드만 “기술주 붕괴” 진단도
일부선 “AI, 사람 대체? 공포 과장”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우려가 미국 증시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AI가 기존 서비스 소프트웨어 기업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사스포칼립스’ 공포가 변진 데 이어, 자산운용·보험 업종도 직격탄을 맞았다.

블룸버그·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금융서비스 기업 레이먼드 제임스 파이낸셜 주가가 8.8% 급락했다.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칼스 슈왑은 7.4%, LPL 파이낸셜이 8.3% 하락하는 등 투자자

들은 앞다퉈 자산자문·관리업종 주식을 던졌다. 자산관리 사업의 비중이 큰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모건스탠리·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 주가도 나란히 1~2%대 하락했다.

과문을 일으킨 건 미국의 AI 스타트업 알트루이스트다. 이날 알트루이스트는 AI를 기반으로 고객의 금여·명세·서·계좌·내역 등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으로 세금 전략을 분석하고 제안하는 세무·자산관리 자동화 도구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 닐 사이프스는 “이번 매도세는 AI가 금융 자문과 자산관리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는 광범위한 우려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쟁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장기적인 수수료 압박, 잠재적인 점유율 변동에 대

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핵심은 ‘AI 기술 발전의 역설’이다. 그동안 AI는 빅테크의 성장 동력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급성장한 AI가 기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주식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 주 오픈AI 출신이 주축이 돼 설립된 앤트로피의 범률서비스·금융 리서치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AI 도구를 출시한 게 신호탄이었다. 사스포칼립스 우려에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과 데이터·금융정보 제공업체의 주가가 급락했다. 골드만삭스의 샤론 벨은 파이낸셜타임즈(FT)에 최근 상황을 “기술주 붕괴(tech wreck)”라고 진단했다.

자산운용사는 물론 보험업계도 영향권에 들었다. 온라인 보험 플랫폼 인

슈리파이가 내놓은 AI 기반 비교앱을 내놓자 보험업종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출시 발표 후인 지난 9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보험지수는 3.9% 내렸는데,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다. 월리스 타워스 월슨(-12%), 아서 제이 갤러거 (-9.9%) 등 보험 중개·컨설팅 회사 주가도 일제히 내려앉았다. 마이클 브라운 UBS 애널리스트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데, 부정적인 가능성을 반박하기도 매우 어렵다”며 “앞으로 12개월, 혹은 24개월 동안 이 기업들(자산관리회사 등)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은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과도한 공포라는 반론도 있다. 레이먼드 제임스 파이낸셜의 애널리스트 월마 버디스는 이번 매도세에 “완전히 과장된 반응”이라며 “결국 사람들

은 자신의 돈을 누군가, 그것도 사람에게 맡기길 원한다”고 말했다. AI가 보조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자산관리 산업을 단기간에 대체하긴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 일시적 과민 반응인지, 산업 구조를 뒤흔들 변화의 전조인지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단 평가다. 로이터에 따르면 S&P 500 소프트웨어·서비스 지수는 6거래일 동안 최대 17% 하락했지만, 이후 7% 반등하면 하락분을 일부 메웠다. JP모건의 두브라브코 라코스-부야스 전략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AI의 교란 우려가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반영돼 있고 펀더멘털(기초체력)은 견조하다”고 짚었다. 많은 투자자가 아직은 AI가 일으킨 증시의 출렁임을 우량주 투자의 기회로 본다는 의미다.

박유미 기자

알곳은 노·로 관계… “로봇 반대” 파업, 로봇 투입하면 해결?

“인공지능(AI) 대응 차이가 곧 경쟁력 격차다. 협력적 노사 관계가 필수적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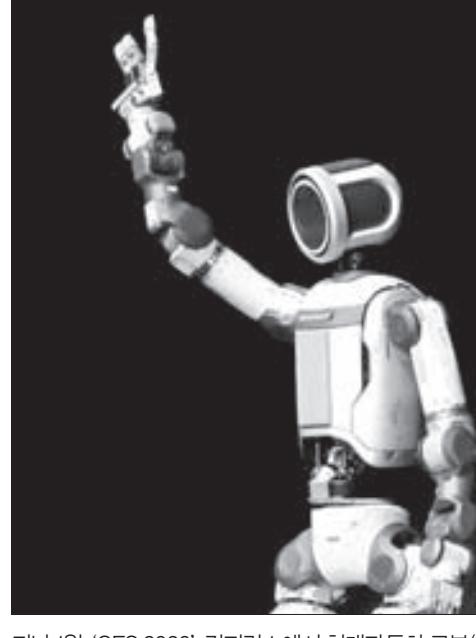
“(AI 등) 노동 관련 정책을 기업이 정할 때 노동영향평가를 수반해야 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아틀라스(현대자동차 로봇), 옵티머스(테슬라 로봇) 등 휴머노이드 기술의 부상으로 노사 관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AI 로봇의 도입을 두고 노사 대표자들이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단기적으로 갈등을 피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대비가 없다면 혼란은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제조 현장에 닥칠 첫 번째 갈등은 ‘로봇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다. 최근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의 없이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는 강경 메시지를 냈다.

이후 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른 논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힌 수위를 낮췄지만, 당장 올해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서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 현대차 단체협약 41조 1항에선 ‘회사는 신기계·기술의 도입, 신차종 개발 및 차종 투입, 작업 공정의 개선,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전환 배치, 재훈련 및 제반 사항



지난 1월 ‘CES 2020’ 컨퍼런스에서 현대자동차 로봇(아틀라스)이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모델.

노사관계 핵심변수 된 로봇

현대차 노조, AI로봇 현장도입 반발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갈등 본격화
‘파업 시 로봇 대체투입 위법 아냐’
사회적 합의 없인 혼란 커질 수도



[영상 X캡처]

은 계획 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조항의 성격상 로봇도 해당 할 것으로 보이고 의결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노조가 반대하면 로봇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봤다.

두 번째 갈등 국면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대차와 달리 단체협약 등에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 로봇 도입은 원칙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안으로 노조와의 사

전 합의의 없이도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로봇 도입 여부 자체가 교섭 대상이 되고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는 로봇 등 신기술 도입을 경영권 행사로 보아, 결정 자체는 존중하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전자·전환배치나 보상과 같은 사후 대책을

중심으로 협상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로봇 도입 여부 자체가 교섭 의제가 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로봇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더 있다. 노조가 적법하게 파업을 했다면 그 기간엔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대체근로)이 엄격히 금지된다.

현행법에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당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하도급해서는 안 된

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로봇을 대체 수단으로 투입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약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해석이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파업 근로자 대신 로봇을 투입하거나, 근로시간의 제약이 없는 로봇을 더 가동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 대체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경우 파업이 무력화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WWW.UMNLOAN.COM

신뢰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15개 주 Lender License를 보유하고 뉴저지와 조지아에
Local Office가 있어 다른 주에 투자 또는 이주시에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꿈을 이루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버지니아주 수상



메릴랜드주 수상



조지아주 수상



National Top 1%
2018년 ~ 2024년까지 7년 연속 수상



Top 50 Mortgage Company

Lender Licensed States (VA, MD, DC, NJ, GA, PA, TN, NC, AL, MI, FL, DE, WV, SC, CA)



대표전화:

703-204-0022 | 703-268-3954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CEO 손여 Sean H Yio
NMLS #: 262952 / M.B.A, MS Finance
NMLS #: 2425871 (회사)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30096

보험 상식 / 401(k) 이전

퇴직연금 이전, 투자 아닌 소득으로 관리
인컴 어누이티·투자 포트폴리오로 재구성

최근 상담에서 한 고객의 401(k)를 인컴 어누이티(Income Annuity)와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Investment Portfolio)로 나누어 재구성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자산을 옮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상담의 핵심은 투자 상품 선택이 아니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 이후 이 돈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였다.

많은 분들이 은퇴 직전까지도 401(k)를 하나의 '계좌'로만 인식한다. 얼마가 모여 있는지, 수익률이 어떤지에 집중한다. 하지만 은퇴가 기까워질 수록 질문은 자연스럽게 달라져야 한다.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이 자산이 은퇴 이후 어떤 구조로 현금흐름을 만

들어 주는가"가이다.

401(k)는 적립과 성장에 최적화된 플랜이다. 직장 생활 동안 꾸준히 모으기에는 매우 효율적이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 구조가 그대로 답이 되지 않는다. 인출은 가능하지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순서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좌가 아무런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 결국 모든 판단은 개인의 뜻이 된다.

이 지점에서 은퇴 리스크가 발생한다.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 생활비를 계좌에서 직접 꺼내 쓰게 되면, 자산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은퇴 초반 몇 년의 인출 순서와 타이밍은 장기적인 자산 수명에 큰 영향을 미



클라우디아 송/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초 파이낸셜

친다. 그래서 이번 상담에서는 자산을 단일 계좌로만 관리하기보다, 역할에 따라 나누는 전략을 선택했다.

한쪽은 평생 소득을 책임지는 인컴 어누이티로, 기본적인 생활비 흐름을 담당하도록 설계했다. 시장이 좋든 나

쁘든 매달 들어오는 소득의 기반을 먼저 만들어 두는 것이다. 다른 한쪽은 유동성과 성장 가능성을 유지하는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로 남겼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그리고 장기적인 자산 성장의 역할을 맡는다.

이 전략의 핵심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있지 않다. 오히려 목표는 반대에 가깝다.

시장을 매번 예측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생활비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것이다.

은퇴 이후 가장 큰 위험은 시장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자산이 충분해 보

여도 초기 인출이 잘못되면 계좌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그래서 소득의 일부를 아예 구조적으로 분리해 두는 것은 은퇴 리스크를 관리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된다.

401(k)를 옮긴다는 것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뜻도 아니고, 모든 자산을 보수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도 아니다. 자산을 쌓는 관점에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관점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가깝다.

은퇴 설계의 출발점은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이 돈이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다. 이번 상담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현실적인 해답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법 상식 / 기본 공제 vs 항목별 공제

65세 이상 '시니어 보너스 공제' 도입
주·지방세(SALT) 공제 한도 대폭 상향

2025 과세연도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매년 반복되는 세금보고지만 올해는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모두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어 납세자들의 전략적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두 공제 방식은 모두 과세소득을 줄이는 수단이지만,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둘 중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는 납세자의 소득 구조와 지출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기본공제는 납세자가 별도의 증빙 없이 자동으로 공제받는 금액이다. 2025 과세연도에는 인플레이션 조정과 최근 입법의 영향으로 기본공제 금액이 크게 인상됐다. 싱글 신고자는 1만 5750달러, 부부 공동신고는 3만 1500달러, 세대주는 2만 3625달러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이는 신고 절차를 단순화할 뿐 아니라,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 더해 65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싱글 신고자의 경우 2000달러, 부부 공동신

고 시 배우자 1인당 1600달러(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 총 3200달러)의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연령과 장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공제 폭은 더 커진다.

특히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시니어 보너스 공제'는 시니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65세 이상 납세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당 6000달러,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면 최대 1만 2000달러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기본공제 및 기준 연령 추가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65세 이상 부부가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 각종 공제를 합산해 4만 달러 중 반대 이상의 공제도 가능해진다.

항목별 공제 측면에서도 2025년은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동안 가장 큰 논란이었던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기준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대폭 상향됐다. 이 변화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처럼 주세와 재산세 부담이 큰 지역의 납세자에게 특히 유리하게 작용한다.

주택을 보유하고 관련 세금 납부액이 큰 경우, 항목별 공제가 기본공제보다 더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항목별 공제 중 모기지 이자 공제 역시 중요한 요소다.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모기지 중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의 대출에 대해 지급한 이자는 항목별 공제로 인정된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모기지 이자 공제는 주택 소유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리파이낸스나 험에 퀴터론의 경우 용도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비 공제 또한 항목별 공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의료비는 단

순히 많이 지출했다고 해서 모두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AGI가 10만 달러인 납세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 중 75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만 항목별 공제로 인정된다. 병원비와 의사 진료비뿐 아니라 치방약, 치과·안과 치료비, 장기요양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보험료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 지출이 많은 시니어 납세자라면 항목별 공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자선 기부금 공제도 항목별 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이다. 현금 기부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 기부도 공제 대상이 되며, 기부금 영수증 등 적절한 증빙이 필수다. 기부금 공제는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소득 수준에 따라 전액 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기부 계획을 세워 공제를 분산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만 SALT 공제,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모두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공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들 수 있

기 때문이다. 고소득자의 경우 실제 적용 가능한 공제액을 사전에 계산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절세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올해는 단순히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기본공제가 커졌다 고 해서 무조건 기본공제를 선택하는 것도, SALT 공제가 확대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항목별 공제가 유리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니어 납세자의 경우 기본공제와 시니어 공제만으로도 과세소득이 크게 낮아질 수 있는 반면, 재산세가 높은 주의 주택 소유자들은 항목별 공제를 통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결국 2025 과세연도의 핵심은 비교와 선택이다.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 수준과 가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검토한 뒤 최적의 신고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 그리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변화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베지니아와 멜릴랜드 법원, 베지니아와 멜릴랜드 연방지법,

베지니아와 멜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시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혼자 할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

리치몬드
페니슬라
상담원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암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다시 읽는 박완서 문학

올해로 작가 박완서(1931~2011) 별세 15주기. 크고 작은 가지가 고루 무성한 아름드리나무처럼, 시대와 세대를 고루 관통하며 뻗어 나간 그의 문학 읽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새로 나온 단행본을 중심으로 그 면면을 소개한다. 특히 젊은 세대, 새로운 독자를 위해 말빨 호원숙 작가에게 청한 글을 함께 실는다.

과거의 소설에 현재의 독자가 감응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올해 새로운 단행본으로 출간된 박완서의 작품들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쥬디 할머니』에 실린 단편들은 집필 연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현대적이다. 이 소설집에 실린 단편은 10편. 문학동네가 한강, 김연수, 편혜영, 성해나, 박상영, 강화길 등 활발히 활동하는 소설가 31명에게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문학동네, 2006, 전 7권)의 단편 중 2~3편씩을 추천받아 골랐다. 지난달 20일 출간 직후부터 『쥬디 할머니』는 각 대형서점의 분야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표제작은 1981년 처음 발표됐는데, 「쥬디」라는 서양식 이름을 가진 손주를 귀여워하는 할머니의 이야기다. 의학 박사, 공학 박사를 비롯해 할머니의 다섯 자식은 결혼 안 한 막내를 포함해 다들 해외에 산다. 할머니는 혼자 살면 서도 번듯한 아파트에 자식들, 손주들 사진을 걸어 놓고 주변의 선망과 질투를 받는다. 그러나 이 소설에는 반전이 있다. 할머니를 둘러싼 소문과 함께 소설은 그가 실제로는 “그냥 잡동사니”인 것들로부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며 살아왔음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끝난다. 당대 사람들이 느꼈을 모순적인 삶의 모습이 현재의 이야기로도 무리 없이 읽힌다.

박완서의 소설은 콕 짚어 이름 붙이기 모호한 일상의 모순들을 ‘보통 사람’의 감각으로 또렷이 담아낸다. 전후 ‘한강의 기적’과 함께 경험한 자본주의의 만능의 정서, 뿌리 깊은 가부장제의 전통 등은 우리 사회를 지탱했지만, 뒤따르는 문제도 명확했다.



새로운 독자, 젊은 세대의 독자들은 박완서의 글을 읽고 묘한 기시감에 빠질지 모른다. 모순의 지층이 더욱 불어난 사회에 살고 있는 까닭이다. 우리를 살찌우고 괴롭히는 삶의 단면이 그의 글에 숨 쉬다. 그러므로 놓칠 수 없는 ‘다시 읽기’의 매력이 두드러진다.

마지막 장편 『그 남자네 집』(2004)과 마지막 산문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2010)도 다시 나왔다. 현대문학은 지난달 22일 두 책의 리커버판을 인터넷서점 알라딘 한정으로 출간했다.

박완서 개인의 삶도 엿보인다. 『그 남자네 집』은 한국 땅의 비극적 역사와 함께, 그곳에서 피어난 작가의 첫사랑을



쥬디 할머니
문학동네, 2026



그 남자네 집
현대문학, 2026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현대문학, 2026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웅진지식하우스, 2025

다룬다.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에는 노년의 삶과 생각, 여러 책의 서평 격으로 쓴 글 등이 실려 있다. 『쥬디 할머니』에 실린 ‘나의 가장 나종지인 것’(1993)에선 1988년 남편과 아들을 잃은 작가의 심경이 느껴진다.

그의 삶과 문학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박완서 아카이브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새로 마련됐다. 이곳에서 4월 말까지 이어지는 전시의 제목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 김수진 학예연구관은 “박완서의 동화집 『마지막 임금님』(샘터, 1980)에 수록된 글의 제목”이라며 “박완서 아카이브가 각박한 세상에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담았다”고 전했다. 『세 가지 소원』(마음산책, 2009)에도 다시 수록된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에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엄마, 아빠, 할머니가 저마다 준비를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할머니는 손주를 위해 자신이 “으뜸가는 선물”로 치는 ‘이야기 선물’을 준비한다. 박완서의 문학은 그가 오래도록 매만져온 선물 같다. 기쁘게 풀어보자.

최혜리 기자

박완서 작가. [중앙포토]



서울대 박완서 아카이브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 전시장 모습. 공중에 걸린 종이에 노년에 쓴 일기의 내용이 보인다.

우상조 기자

전쟁 겪은 스무 살의 기억과 증언

경기도 개풍군 청교면 묵송리 박적골 개성에서 남서쪽으로 이십 리(약 8km) 가량 떨어진 이곳은 지금은 북한 땅이자, 1931년 박완서가 태어나 유년기를 보낸 곳이다. 당시 스무 집 채 못 되게 살았던 이 작은 마을에서 양반 행세를 하는 두 집 중 하나가 그의 집안이었다.

그가 박적골을 처음 떠나게 된 것은 여덟 살 무렵. 대답한 결정을 내린 어머니 손에 이끌려 서울로 향하는데, 서울살이의 시작은 사대문 안이 아니라 독립문 근처 현저동이었다. 아파트로 빼빼한 요즘과 판관으로 웃돈을 줘야 지게꾼이 집을 날라 주는 산동네, 그나마도 남의 집 문간방 한 칸에 세를 든 형편이었다.

이렇게 펼쳐지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와 더불어 그의 대표적이고 본격적인 자전 소설. 널리 알려진 대로 그는 스무 살에 서울대 문리대 국문과에 학격하지만, 곧바로 전쟁이 터졌다. 전쟁통에 그와 가족이 겪는 일은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로 이어진다.

박완서는 이 소설을 “순전히 기억력에만 의지해서”(『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서문에서) 썼다고 밝혔다. 달리 말해 전형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책장을 넘기면 바로 실감할 수 있다. 특히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는 서울이

인민군 치하에서 국군 치하로 바뀌고 또 바뀌는 가운데 겪는 살 떨리는 체험, 빈집을 뒤져 먹을 것을 찾고 일자리를 구하고 피난과 귀환과 행상과 장사를 벌이며 살아가는 모습이 지독할 만큼 생생하다. 민족상잔의 전쟁이 무엇인지, 전쟁 속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피부에 와닿게 한다.

두 소설은 각각 1992년과 1995년 처음 출간됐다. 치밀하고 소중하게 간직한 젊은 날, 어린 날의 기억과 이를 지금 눈앞에 보여주듯 생동감 넘치게 펼쳐내는 60대의 필력이 모두 감탄스러운 작품이다. 그를 작가로 만든 게 무엇인지도 가늠하게 한다. “나만 보았다는 데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았다. 우리만 여기 남기까지 얼마나 고약한 우연이 었지”고 덧쳤던가. 그래, 나 훌로 보았다면 반드시 그걸 증언할 책무가 있을 것이다. 그거야말로 고약한 우연에 대한 정당한 복수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말미에 그는 “언젠가 글을 쓸 것 같은 예감”이 “공포를 몰아냈다”고 썼다.

두 책은 지난해 사진작가 이옥토의 작품으로 표지를 만든 리커버판이나 젊은 독자들의 관심을 새로 불러일으켰다.

그의 장편소설을 고루 포함한 ‘박완서 소설집 결정판’(세계사, 2012, 전 22권)으로도 나와 있다.

이후남 기자

REALTYONE GROUP

THE SCHNEIDER TEAM

내집장만

비엔나 NEW 싱글

승경호 부동산

“신축 주택은 주거 성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기성 주택보다 면밀한 관찰이 요구됩니다. 마감재 이면의 시공 상태부터 각종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까지, ‘새집’이라는 상징성보다 ‘건축물 본연의 완성도’에 집중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전문가보다 더 전문적으로 봐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언제, 어디서든 만나서 리스팅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703.928.5990

703.928.5990

승경호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내집장만

내집장만 소식지

차세대 HBM 승부수, 삼성은 '원팀' SK는 '연대'



Cover Story

'세미콘코리아' 연설 속 전략

삼성, 설계·메모리·패키지 다 보유
수직계열화로 기술 초격차 자신감
SK는 TSMC 등 파트너 협업 강조
“AI 생태계 구축, 기술 변곡점 극복”

“기술력에 있어선 우리가 최고입니다.
고객사 피드백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

“10년 뒤 기술 변곡점을 극복하려면
반도체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성훈 SK하이닉스 부사장)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코리아 2026'이 개막했다. 반도체 산업이 초호황기에 접어든 만큼, 행사장은 역대 최대 규모인 550개 기업, 2409개 부스가 마련됐다. 사흘간 열리는데 예상 참관객이 7만 명에 이른다.

업계의 시선은 단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쏠렸다.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양사가 서로 다른 해법인 '독자적 시너지'와 '전략적 동맹'을 향으로 던졌기 때문이다.

이날 삼성전자 송재혁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최고기술책임자(사장)는 '1등 삼성'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HBM3E(5세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코리아 2026' 인아오리엔탈모터 부스에 웨이퍼 이송용 원통 좌표 형로봇이 전시돼 있다.

시장에서 겪었던 부침을 뒤로하고, HBM4(6세대)를 통해 기술 리더십을 완벽히 가져오겠다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송 사장은 '제타플롭스(ZFLOPS·초당 10해 연산)를 넘어, 그다음 단계

는'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원팀(One Team)'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AI 패러다임이 추론과 에이전트, 그리고 피지컬 AI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로직·메모리·패키지를 모두 최적화하는 AI 시스템 아카

텍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HBM은 대역폭을 넓히고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순히 D램을 쌓는 게 아니라 HBM의 두뇌 역할을 하는 '베이스다이(HBM 아랫부분)'에 초미세 파운드리(로직) 공정을 도입해야 한다. 송 사장은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지 사업을 모두 갖춰 AI가 요구하는 제품 생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삼성은 칩과 칩을 직접 접합하는 '하이브리드 코퍼 본딩(HCB)',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위에 HBM을 3D로 수직 적층하는 'zHBM' 등 차세대 로드맵을 공개하며 기술 초격차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현재 HBM 시장 선두를 지키고 있는 SK하이닉스는 '협업'을 강조했다. 삼성이 내부의 수직계열화된 역량을 강조할 때, 하이닉스는 글로벌 선두 기업과 연대를 통해 '적기 공급'과 '수율 안정성'이라는 실리를 쟁기겠다는 전략이다. '변곡점의 도래: 메모리 기술의 미래를 향한 혁신 주도'란 주제로



송재혁

이성훈

이우림 기자

외국 관광객·체험 콘텐트... 백화점 3사 크게 웃었다

롯데·신세계·현대 모두 영업익 경총 각 0.1%, 9.5% 늘었다.

외국인 멤버십 강화 등 공략 가속

국내 주요 백화점 3사(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가 지난해 내수 부진 속에서도 실적을 개선하는데 성공했다.

11일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해 매출 4조 2303억원, 영업이익 3782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0% 늘었고, 영업이익은 33.2% 급등한 규모다. 백화점 부문(아웃렛 포함) 별도로는 매출이 2조 4377억원, 영업이익이 3935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각

한시적 중국인 무비자입국정책 등이 맞물려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만큼 백화점 방문객도 늘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객은 1893만6562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2019년(1750만명) 실적을 뛰어넘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4분기에만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70% 성장해 연간 외국인 매출 6000억원대를 기록했다. 특히 센텀시티점은 부산행 크루즈 등으로 부산을 찾은 외국인이 폭증해 전년대비 외국인 매출이 135%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다

가오는 중국 춘절 기간에도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점포 내 외국인 전용 라운지 설치, 외국인 멤버십 혜택 강화 등 맞춤형 전략을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더 현대서울과 무역센터점을 중심으로 지난해 외국인 매출이 전년대비 25% 늘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명동 본점과 잠실점 등 대형 거점 점포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외국인 매출은 전년대비 29% 늘었다"며 "외국인 고객의 국적도 미국 및 유럽 국적 16%, 동남아시아 13% 등 다변화 했다"고 말했다.

다만 내수 침체 속 내국인 수요를 끌

어들일 방안이 부족한 점은 한계로 꼽힌다. 이에 백화점 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맞춰 특화 전략을 유지면서도 VIP 경쟁력 강화, 고급화 등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잠실점에 역대 최대 규모 크리스마스 마켓을 선보여 고객 호응을 얻은 만큼 올해도 차별화된 공간으로 내수 침체를 정면돌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강남점에 6000평의 식품관을 구축하고 중구 본점을 재단장하며 점포별·상권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노유림 기자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GALAXY REALTY

주택 매매 및 렌트	사업체 매매	1465 Hampton Hill Cir, McLean, VA	
		COMING SOON	\$1.25M
로리가 Hampton of McLean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한 아파트로 소유이거나 본인 집도 빌려 달라고 연락 옴. 2/6 마켓에 올라올 예정		NEW	
5280 Jule Star Dr, Centreville, VA		UNDER CONTRACT	\$689,000
손님이 꼭 원하는 지역의 사고 1 타운 홍, 경쟁률 높고 득템, Buyer So Happy		12/22 새틀먼트 예정	
8110 Squirrel Run Rd, Springfield, VA		SOLD	\$625,000
셀러가 원하는 조건으로 팔 45일 무료 Rent Back은 보너스. 로리는 팔 것도 잘 함.		Seller So Happy. 11/24 새틀먼트 원로	
1477 Hampton Hill Cir, McLean, VA		SOLD	\$1.32M
복수 오피 밸리 경쟁력 커리스팅 가격보다 2만불 더 받음. Seller So Happy		10/24 새틀먼트 원로	
6758 Brook Run Dr, Falls Church, VA		SOLD	\$775,000
집 시자마자 주제원 장기 렌트 원로		10/21 새틀먼트 원로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SALE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잘 생긴 싱글홈			
DC 내 위치 좋은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윤리 예정		DC 내 위치 좋은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윤리 예정	
사업체 매매		텔리냅(DC)	\$150K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울 거울/내년 봄에 파견 나온 주제원 30여명 있음, 렌트 높을 걸 갖고 있는 집 주인 협영	10월 ~ 내년 1월 입주 예정	\$2,000 ~ \$5,500 가격 대 렌트
1423 McLean Mews Ct, McLean, VA	바로 입주 가능	\$5,500 집 전체 업그레이드 된 차고 1 타운 홍, 방 3, 화 3+1, 개방 일정, 풍행로우 중/맥글린 고등
McLean, One Park Crest 콘도	바로 입주 가능	\$4,000
6518 Alexis Ln, Springfield, VA	바로 입주 가능	\$2,700 방 2, 화 2, 지정 차고, Springfield ES, Longfellow MS, McLean HS
Centreville, VA	12/20 입주 가능	\$3,200 집 전체 Renovation 된 차고 1, 차고 1 태운 홍, 복 4, 화 3+1, 풍행로우 중/맥글린 고등
6605 Anthony Crest SQ, McLean, VA	12월 말 입주 가능	\$4,800 맥글린에서 우수하게 수영장 있는 차고 1, 태운 홍, 복 4, 화 3+1, 풍행로우 중/맥글린 고등
7606 Jervis St, Springfield, VA	1/1 입주 가능	\$3,300 집 전체 Renovation 된 차고 1, 싱글 홍, 교통편리, 복 4, 화 3+1, Nice Owner
Vienna 티아슨스 옆 Amberwood 티아슨스 단지 3채	현재는 12/20일, 두채는 1/1 입주 가능	\$4,600 ~ \$4,800 차고 2 태운 홍, Greenbriar 역, Westbrook 초등 걸려 수 있는 거리, 집 상태 아주 좋음

사무실 (703) 622-0312 |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Penn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포도송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 속 피사체는 포도가 맞다. 하지만 포도(사진)가 아니기도 하다.

세상에는 이렇게 알록달록 형광 빛으로 물든 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포도는 작가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허구일 뿐이다. 그런데 작가는 분명 포도를 찍었다.

갤러리나우에서 이달 28일까지 전시되는 고려명 작가의 사진전 '듀얼(DUAL)'은 사물을 늘 보이던 대로만 이해하려는 우리의 습관을 흔들어버린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 이것이의 실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대로일까. 혹시 저 안에 전혀 다른 존재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손바닥에 올려놓기에 가쁜한 길이 20cm짜리 포도를 세로 2m길이로 10배 부풀려 프린트를 하니 포도 알 위에 남은 분가루와 균열 그리고 주름진 껍질의 결까지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또 하나의 풍경이 보인다.

은하게 구슬처럼 포도 알 하나하나

고려명 작가 사진전 '듀얼(DUAL)'

20cm 포도, 채색 후 10배 키워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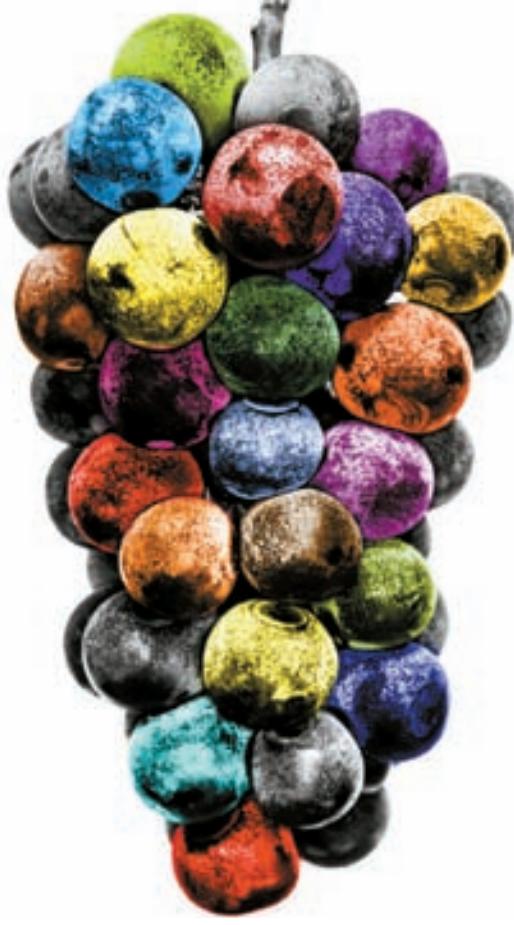
익숙한 사물에 대한 '통념' 깨뜨려

가 신비로운 행성 같다. 더 자세히 다가 가면 포도 알 위 분가루 모양이 지구의 5대양 6대륙처럼 보인다. 까만 포도 알 사이에 박힌 금색 포도 알은 우리 안에서 벌떡이는 심장 같고, 검붉은 빛으로 뻗은 포도 가지는 모세혈관 같다. 포도 한 송이를 손에 훔으로써 거대한 우주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신이 난다.

프랑스 파리에서 10년 간 공부하며 머물었던 작가는 2011년 어느 날 먹으려고 창가 앞에 두었던 포도송이를 보고 마침 이베이에서 낙찰 받은 우주관 측형 특수 필름을 실험했다가 포도송이가 그려내는 이 엄청난 우주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후 지금까지 그의 포도 사진은 대형 카메라를 기반으로 작가

은하게 구슬처럼 포도 알 하나하나

자신 안에 내재된 여러 욕망들을 구현



하고 있다.

"사진사로선 2m 크기로 프린트해도 깨지지 않는, 사진 자체로 정직하고 정교한 사진을 추구하죠. 작가로선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촬영 후 디지털로 색을 입하거나 포도 알 자체에 금박을 입혀서 촬영하는 작업은 조형적으로 완성도를 추구하려는 욕망 때문이죠. 인간 고려명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좋은 작품을 남기길 바라죠."(웃음)

포도는 생명과 번영을 상징한다. 잘 영근 포도송이들 덕분에 전 세계가 와인이라는 생명의 물을 맛보고 있다.

고작가는 '왜 포도였는가'라는 질문에 "우연히 만난 오브제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자연에서 왔다는 사실에 감사한다"고 답했다. "예술이란 마음의 틈을 채워주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생각하는데 자연에서 자기 멋대로 여문 포도의 생명에너지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다"는 게 작가의 설명이다.

서정민 기자

박정민의 멜로 눈빛... 청룡영화상 때보다 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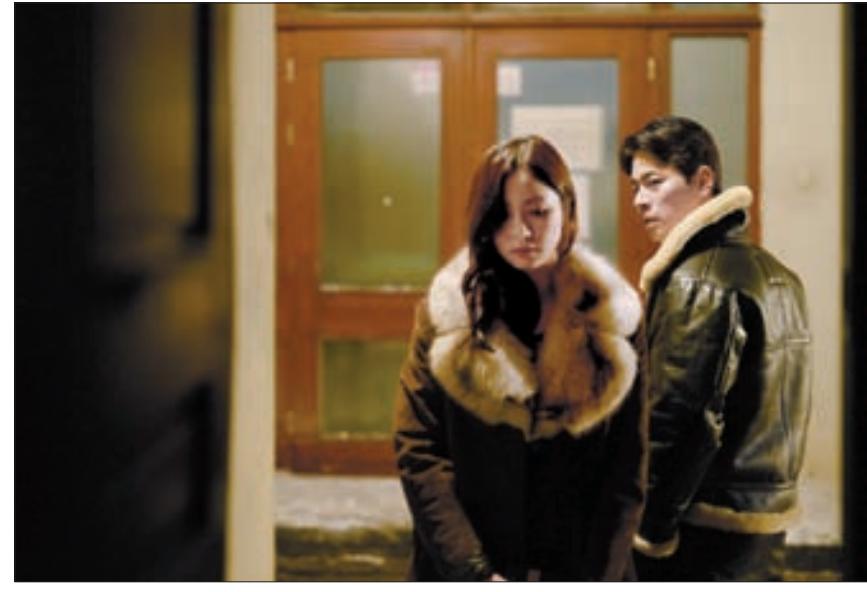
류승완 감독 영화 '휴민트' 개봉 첨보·액션·멜로... 흥행 공식 총집결

류승완 감독의 새 영화 '휴민트'가 11일 개봉했다. 류 감독이 영화 '베를린'(2013) 이후 13년 만에 선보이는 첨보영화로, 이번 설 연휴 최대 기대작으로 꼽혔던 작품이다. 남북 간 첨보물이라는 세계관은 '베를린'에서 이어지지만, 복잡한 국제 정세는 덜어내고 첨보와 멜로에 집중했다. 요즘 한국 영화계 예선 기대감이 큰 작품일수록 평가가 박하다는 푸념이 나오지만, '휴민트'의 출발은 성공적이다. 이날 새벽 개봉 직전 예매율은 38%(예매 관객 19만명)를 기록했고 개봉 후 포털사이트와 영화관 예매 사이트의 관람객 평점도 9점대에 안착했다.

리宁县 119분인 이 영화는 동남아에서 마야 루트를 쫓는 국정원 블랙요원 조 과장(조인성)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자신의 휴민트(정보원)가 희생돼 괴로워하던 조 과장은 블라디보스토크 작전에서 새로 포섭한 휴민트 채선

화(신세경)를 제때에 구출하려는 강한 동기를 가졌다. 하지만 평양에서 파견한 북한 국가보위성 조장 박건(박정민)이 나타나며 채선화를 둘러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감정의 중심축이 조인성에서 박정민으로 넘어가며 몰입도도 커진다. 신세경과 쳐연한 멜로 연기를 펼치는 주인공도, 북한 총영사관(박해준)의 음모에 빠져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것도 박정민이기 때문이다. 열핏 연적 관계가 될 것 같았던 조인성과는 후반부에 급격한 '브로맨스'를 형성한다. 첫 멜로 주연에 도전하는 박정민의 짙은 눈빛 연기는, 지난해 청룡영화상 당시 화사와 호흡을 맞추며 화제가 된 '멜로 눈빛'을 연상시킨다. 사람의 몸에 사정없이 다크를 끓는 냉혈한이지만, 잊지 못한 연인과 재회한 뒤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실감나게 그렸다. 박정민은 최근 인터뷰에서 "채선화의 가족 문제조차 원칙대로 처리했던 박건이, 이번에는 채선화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감정을 처절하게 표현했다"



영화 '휴민트' 속 한 장면. 북한 보위성 요원 박건(박정민)이 옛 연인 채선화(신세경)에게 사라지듯 떠난 이유를 묻는다.

[사진 NEW]

며 "그동안 겪어온 숱한 이별들이 이번 연기의 자양분이 됐다"고 말했다. 스크린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신세경이 패티김의 '이별'을 나즈막히 부르며 사연 있는 북한 여성으로 복귀한 모습도 관전 포인트다.

관객의 통각을 자극하는 류승완의 주문을 했다고 한다. 반면 조인성은 긴

팔다리가 들키는 시원시원하고 절도 있는 액션을 선보인다. 조인성은 11일 인터뷰에서 "이를 위해 국정원에서 사격 자세뿐 아니라 종기반동, 재장전 타이밍, 발사 가능한 총알 개수까지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영화는 남·북 간 첨보물 이란 전형적인 소재를 긴장감 넘치는 액션과 절제된 멜로에 담아내며, 한국 영화의 흥행 공식을 성실히 따랐다. 다만 류 감독은 남남북녀의 사랑을 피하고 북한 요원에게 이야기의 중심축을 넘기는 등 클리셰를 살짝 비튼 조리법으로 기시감을 희석시켰다.

넷플릭스 시리즈 '폭죽 속았수다'에서 순애보 연기를 펼치던 박해준이 능글능글하게 펼치는 교활한 연기도 극의 재미를 더하는 포인트다. 이 영화에서 여성은 주로 약자와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구출 대상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차를 거칠게 몰고 총을 쏘며 나타난 임 대리 역 정유진은 또 다른 조연 배우의 발견이다.

정은혜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버크 타운홈 **비엔나 콘도** **매나사스 콘도**

신규 리스팅 **COMING SOON**

클립턴 싱글홈 \$900,000
방4, 화3, 카고1, 다수 업그레이드 완료

페어팩스 타운홈 \$675,000
방3, 화2.5, 카고1

페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카고2

센터빌 타운 \$600,000
방/화2.5, 카고1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과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치침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우린 봤습니다 부러지지 않는 당신의 마음을



지난해 12월 월드컵 우승 후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린지 본. 부상을 극복하고 출전한 이번 올림픽에서 화려한 복귀를 노렸지만, 고질적인 십자인대 부상에 발목을 잡혔다. 활강 결승에서 균형을 잃고 슬로프에 추락했다.

[연합뉴스]

‘도전의 아이콘’ 42세 린지 본의 투지 결승서 다리 골절 “현재 상태 안정적” 올림픽 경기 뒤 SNS 선 응원 메시지 “출발선 서기 위해 모든 노력할 것”

‘스키 여제’ 린지 본(42·미국)은 10일 동안 두 차례나 헬리콥터에 실려 스키장을 떠났다. 지난달 30일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왼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 헬기 신세를 졌다. 8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활강 결승에서 레이스 도중 넘어져 또다시 응급 헬기로 이송됐다. 이번엔 왼쪽 다리 골절상이다.

두 번째 부상 직전까지 본은 원더우먼 같았다. 왼무릎 십자인대를 다치고 도슬로프를 질주했다. 그는 오른쪽 무릎도 2년 전 티타늄 인공 관절로 갈아끼운 상태다. 시속 13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질주하는 활강은 알파인 스키에서 가장 위험한 종목이다. 본은 두 차례 연습 활강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메달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기적은 없었다. 결승 레이스 출발 13초 만에 기문에 부딪혀 넘어졌다. 인대가 끊어진 왼쪽 다리가 균형을 잡아주지 못해 공중에서 중심을 잃었고, 슬로프에 처박혔다.

사고 직후 본은 코르티나 지역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다. 이어 대형병원으로 재차 이송돼 수술대에 올랐다. 미국스키협회는 “본의 상태는 안정적이다. 미국·이탈리아 의료진이 집중 치료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당초 본은 “이번 올림픽을 포함해 올 시즌을 마음껏 즐긴 뒤 은퇴할 것”이라 말해왔다. 하지만 골절상 회복에는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헬기



린지 본이 결승에서 쓰러진 후 슬픈 표정으로 경례를 보내는 미국 관중들. [로이터=연합뉴스]

에 실려 슬로프를 떠나는 장면이 그의 현역 마지막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 ESPN은 “그의 복귀가 올림픽 흥행에 도움이 됐지만,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진다면 올림픽 정신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진의 경고를 무시한 스포츠 정

신은 만용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다가서려는 본의 도전 정신이 금메달보다 더 감동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는 “본을 통해 나 또한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지지 않았다”는 격려 메시지와 함께 #GoLindsey, #Vonn 등 의 응원 해시태그가 줄줄이 달렸다. 커스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도 “린지 본은 언제나 책임이자 영감의 상징”이라며 쾌유를 기원했다.

‘도전의 아이콘’이라는 상징성이 향후 광고 시장에서 그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본은 이미 롤리스, 구찌, 언더아머, 헤드 등 여러 브랜드와 협업한 경험이 있다. 패션계의 아카데미로 통하는 맷갈라에도 수차례 초청돼 멋진 드레스 자태를 뽐냈다.

본은 올림픽 무대에서 금 1개와 동 2개를 목에 걸었다.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금과 동을 각각 한 개씩 거머쥔 뒤 무릎 부상으로 8년을 견디워었다. 이어 2018년 평창 대회에서 동 1개를 보탰다. 지난 2019년 오른 무릎 부상 여파로 은퇴할 땐 “내 몸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면서도 “부상은 내 스토리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다”라고 당차게 말했다. 꺼지지 않는 투지를 앞세워 그는 7년의 공백을 깨고 지난해 현역으로 돌아왔다.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본은 “능력이 닿는 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출발선에 서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끔찍한 부상과 함께 막을 내렸지만 본에게 이번 도전은 실패가 아니다. 언젠가 새로운 출발선에 다시 서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이해준 기자

프로농구서 30분 지각, 변명도 안 한 감독

후반전에 등장한 삼성 김효범 감독
연락 없다가 경기 1시간 전 ‘늦는다’
지각 사유 묻자 “개인사” 설명 안해

감독도 안 오고, 심판도 오지 않는다. 코미디가 아니다. 2026년 대한민국 프로농구의 참담한 민낯이다. 지난 9일 수원 KT와의 경기, 삼성 김효범(43) 감독은 경기가 시작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후반전이 되어서야 코트에 나타났다.

김 감독은 경기 시작 불과 1시간 전 구단에 전화를 걸어 “개인 사정으로 30분 정도 늦겠다”고 통보했다. 그 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잠수’를 했던 KBL 대회운영요강 제25조와 26조에는 선수단의 정시 도착과 경기 협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규정을 떠나 1분 1초를 더 두는 승부의 세계에서 수장을 맡은 이가 경기 직전에 노쇼(No-Show)를 통보하는 것은 팬들과 선수단, 그리고 농구라는 종목 자체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다.



지난 9일 ‘개인사’를 이유로 경기장에 늦게 나타난 프로농구 삼성 김효범 감독.

미국프로농구(NBA)에서도 감독 지각 사태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필 잭슨 같은 명장도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인터뷰에 늦은 적이 있고, 마이크 부덴홀저 등 여러 감독이 가족의 응급 상황으로 경기장에 뒤늦게 도착하거나 불참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지각은 이번 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NBA에서는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구단과 리그에 상황을 공유하고, 경기 시작 수시간 전 수석 코치의 대행 체제를 공식 발표해 팬들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시스템에 의한 ‘공식적 지연’이지, 김 감독처럼 연락이 두절됐다가 경기 직전에야 일방적으로 지각을 통보하는 무책임

한 행태와는 차원이 다르다.

사후 대처는 더 이상하다. 김 감독은 지각 사유에 대해 “개인사”라며 입을 닫았다. 감독이라도 늦잠을 자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말 못 할 개인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프로라면, 그리고 실수를 했다면 미디어를 통해 팬들에게 최소한의 납득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했어야 했다. 그것이 입장료를 내고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이다.

최근 농구계는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지각’ 사고로 얼룩져 있다. 감독은 안오고, 심판은 깨먹는 리그를 누가 귀한 돈과 시간을 써가며 보겠는가. 피주영 기자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Realtor

주현 투테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 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Ellicott City, 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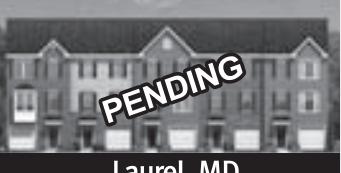
\$705,000

타운홈(55+빌라) 방3, 화2.5, 치고2



Silver Spring, MD

being renovated



Laurel, MD

\$70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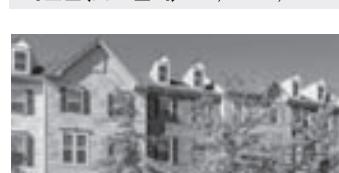
타운홈 방3, 화2.5, 치고2



Glen Burnie, MD

\$582,000

타운홈(55+빌라) 방3, 화2.5, 치고2



Elkridge, MD

\$47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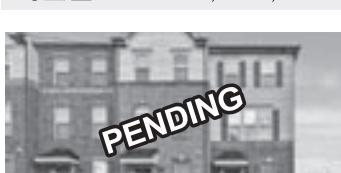
타운홈 방3, 화2.5, 치고1, 2016년



Ellicott City, MD

\$4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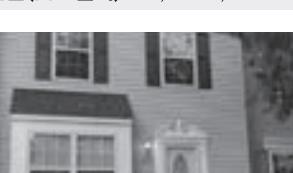
타운홈 방3, 화3.5, Recently Renovated



Hanover, MD

\$450,000

타운홈 방3, 화2.5, 치고1



Rosedale, MD

\$329,000

타운홈 방4, 화3.5, Renovated

Realtor

지니 죄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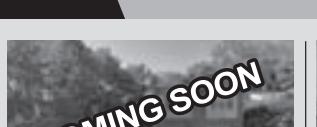
Columbia, MD

월 \$2,600

타운홈 방3, 화2.5

R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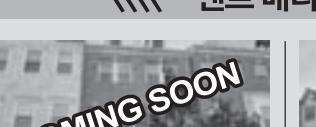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otomac, MD

월 \$4,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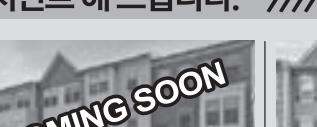
싱글홈 화5, 치4.5



Hanover, MD

월 \$3,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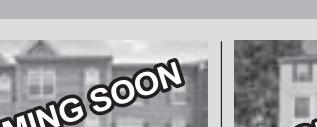
타운홈 방4, 치3.5



Laurel, MD

월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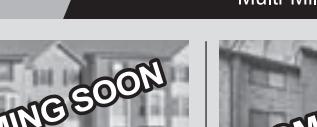
타운홈 방3, 치3.5



Hanover, MD

월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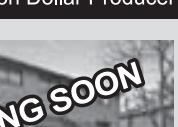
타운홈 방3, 치3



Severn, MD

월 \$2,700

타운홈 방3, 치2.5



Columbia, MD

월 \$2,600

타운홈 방4, 치3.5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일등부동산

뉴스나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5주 속성반
부동산 학교
2025년 9월 16일 (화) 개강
수업료: \$350 (교재비: \$100) 시작일 주요합니다.
뉴스타와 함께 성공하세요.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쪽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학격후 10주 실전교육 • 기본 컴퓨터 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파란만 모시면 100% 합격보장!!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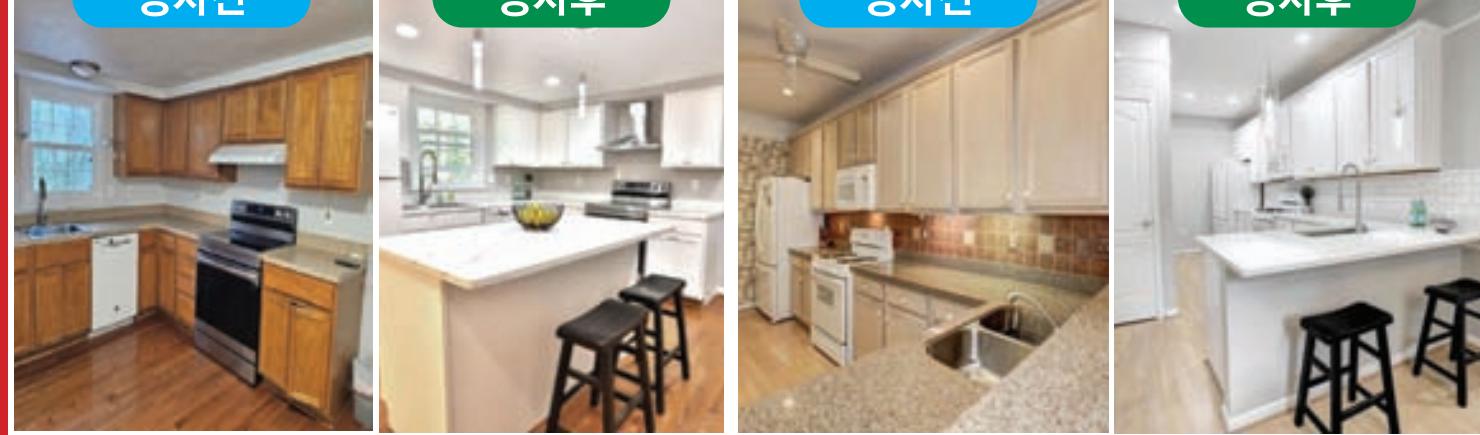
“뉴스나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그냥 팔지 마세요”

뉴스나에서 이쁘게 수리하고 꾸며드립니다.

- 수리 전 가격: \$650,000
- 공사비(후불): \$45,000
- 수리 후 가격: \$750,000

수리 후 \$50,000 이상 이익

* 집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985,000 → \$1,265,000
28만불 더 받고 팔림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370,000 → \$388,000
\$18,000불 더 받고 팔림

버지니아



\$85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치고 2
넓고, 아주 예쁘게 잘 꾸며진 집



\$77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3
좋은 환경에 예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정원



\$785,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2+1, 치고 1
새로 꾸민 부엌과 마루바닥, 편리한 교통



\$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625,000
Elkridge 타운홈

방 3, 화장실 2+1, 치고 2
아주 넓고 예쁜 집, 마루바닥, 1층에 안방



\$950,000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방 4, 화장실 4+1, 치고 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한 이쁜 집



\$999,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치고 2
넓은 구조와 잘 가꾸어진 집, 벽돌, 마루바닥



\$880,000
센터빌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치고 2
아주 잘 꾸며진 예쁜 집, 이쁜 뒷뜰, 수영장



\$1,05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4+1, 치고 2
우드슨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많이 함



\$750,000
실버스트링 타운홈

방 3, 화장실 3+1, 치고 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홈, 넓고 예쁜 집



\$1,275,000
N. Potomac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치고 2
아주 예쁘고 밝은 고급 집



\$1,425,000
NW 싱글홈

방 3, 화장실 2
체비체이스와 경제지역, 편리한 교통, 고급 동네



\$1,18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치고 2
코스트코 근처, 벽돌집, 마루바닥, 환경좋은 고급 집



\$1,350,000
비엔나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치고 2
편리한 교통에 멋진 고급 집, 최근 몇 년 사이에 업그레이드



\$1,60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치고 2
1년된 새집, 고급스럽게 잘 꾸며진 집, 좋은 학군



\$1,07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2+1, 치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예쁜 집, 좋은 학군



\$1,070,000
N. 포토맥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치고 2
아주 고급스럽게 잘 꾸며진 집, 넓은 뒷뜰, 우트 고등학교



\$2,500,000
NW 싱글홈

아주 크고 고급스럽게 잘 꾸며진 집, 고급 동네



\$1,875,000
비엔나 싱글홈

방 6, 화장실 6, 치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1,98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5+1, 치고 2
새집, 우드슨 학군, 모던하게 아주 예쁘게 잘 지은 집



\$2,100,000
맥클린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치고 2
아주 크고 고급스러운 집, 넓고 평평한 정원과 이쁜 뒷뜰, 수영장



\$820,000
엘리컷시티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치고 2
밝고 예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뒷뜰



\$3,590,000
베데스다 싱글홈

방 6, 화장실 7+1, 치고 2
새집, 최고급 동네에 아주 넓고 예쁜 새 집



\$649,000
SE 타운홈

방 5, 화장실 3+1
새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예쁜 집

뉴스나부동산

VA 703-496-4989
MD 410-618-4989

8230 Leesburg Pike, Suite 650,
Tysons Corner, VA 22182

3444 Ellicott Center Dr. #105,
Ellicott City, MD 21043



내집 가격이 궁금하다?

캘리 사진으로 만들어진

집김정 리포트를 신청하세요.

1-800-406-4989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CORE Integrative Care & Wellness

센터빌
챈들리
헌돈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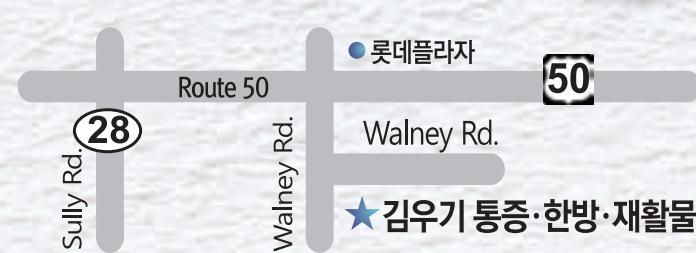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Kenzie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봐스 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 뇌졸중/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 과목

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 여행자 보험

교통사고

- 메디케이드
- 캐쉬플랜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Licensed Acupuncturist

원장 김우기 DPT, LAc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오래되고 잣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2월

구

인

광

고

함께 성장할 회사 임원(Director)을 찾습니다.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사업을 펼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임원(Director)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과 베네핏을 함께 나눌 비전과 열정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편리한 시간에 미팅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을 환영합니다

- 미래를 준비하며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일을 찾는 분
-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분
- 역량에 따라 무한한 수의 창출이 가능한 기회를 원하시는 분
-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 성실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
-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분
- 나이, 성별, 이중언어 여부 무관
-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가능자는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 본인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애난데일, VA (P & A USA Inc)

mydexa21@gmail.com / 571-668-0805 (문자요망)

바른 기사만 담겠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wp., #310, Annandale, VA 22003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VISION

成功的
面包店

금매

Korean BBQ & Hot Pot

케이터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매매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2월 16일 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식품 도매 회사에서 사무직 구함

주 5일 근무, Full time or Part time
Paid time off, Medical insurance 제공
Essex MD (301)477-4010

메릴랜드 봉고메리몰 시계 및 쥬얼리샵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학생 환영
301-365-7794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 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t@gmail.com
문의: 301-468-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온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경
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
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
쉬) 가능 한 유, 무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 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
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 모집
업무: 주방 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 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세탁/이미용/기타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스시용 밥기계(일본제품) 6,000불
2. 육구 버너 350불
3. 튜김(덴뿌라) 기계 300불
4. 그릴스 몰 300불
5. 큰 버너 200불
571-501-4780 (문자요망)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2018년 포드 트렌짓 250, 인슬레이션된
쿨러 밴,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티,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염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글렌버니 리커스토어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유경험자, 파트타임
443-262-1813

DC-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트타임(6am-2pm) \$18/hr + tips
703-785-8763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시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드
리겠습니다.
703-869-5919

손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캐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벽인트)
443-994-3415 (전화 메세지 주세요)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식당에서 홀 서버 하실
분 구합니다.
▶443-420-3096

영어 가능한 델리 매니저 구합니다.
DCSW(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심홀, 나이, 학력, 경력, 성
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싱글/타운 방 렌트

포토맥 싱글홈 렌트 \$4,000

방3, 화2

▶301-399-0140

메릴랜드 엘리콧 시티에서 15분 거리
큰 싱글 지하 전체 렌트, 간이 주방, 큰 욕실, 큰
거실, 큰 욕실, 주차 가능, 유포 \$1,200
703-231-5572

조용/교통 편리한 위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
로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2층 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분 \$7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방 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사업체 매매

1. 애난데일 한국식당 4,000sf, \$27만

2. 벨스빌, 멜리, 주 \$1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콧 시티 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창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태권도장 나간자리,
2,750sf

▶문미애 703-534-4989

메릴랜드 솔로몬 아일랜드안에 위치한
한식당 매매합니다. \$300,000
최적의 위치, 좋은 수익, 저렴한 렌트비
804-519-1918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 5일, 좋은 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파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 전문/굿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퀴라인센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치킨 프렌차이즈, 주매상 4만

7. 일식점,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8. DC NW 잘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9. DC NW 드라이크리닝 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10. 치킨 프렌차이즈 3곳, VA & MD

11. 콩후티, Bakery 등 다수 리스팅 보유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레스토랑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델리샵 (DC) \$150K

DC 내 위치, 장사 잘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에 위치한 보험회사에서 일하실
풀타임 사무직 직원 구함

Kmw122@gmail.com

703-750-2205

Email :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러브핸드 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 제공,
유급휴가 제공/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 있으신 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o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 근무 가능하신 분
▶연락처 703-712-7089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여행사 버스 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센터빌, 챔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리스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금구, 센터빌, 챔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 병원 Front Desk(레스론/타이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 require 이중언어,
▶tys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 703-691-3111
- 2023 Little River Tpk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 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브래드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리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료
- 잇몸치료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div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6일 월요일 중앙일보

식당/식품

RT-1 콘티코 근처 편의점에서 신원 확실한 남자 경력자 구함. 문자 연락 요망. 443-618-7141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트임) 703-712-7417

애난데일 명품 게장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애난데일에 위치한 제과점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쉬어 풀타임 (유/무 경험자) 제빵사 풀타임 (유경험자) 703-625-8525

DC-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트임 (6am-2pm) \$18/hr + tips 703-785-8763

우드브리지 콘티코 부대안에 있는 일식당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구합니다. 신분 확실하시고 영어 가능하신분 703-640-7488/443-978-0900

영어 가능한 멀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 (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저 구합니다. 영어 필수, 경험자 페이 우대 703-628-9168 (문자)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토リング점 구인 푸드코트 캐셔,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합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사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파트임 571-991-4172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바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바 구함.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얼터레이션

알링턴 DC 지역 세탁소에서 직원 구함
풀/파트임 카운터 보살분
풀/파트임 얼터레이션 하실분
571-455-3609

알렉산드리아 테일러샵에서 바느질 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티임 가능하신분
703-328-3064

자동차/정비/바디샵

풀스쳐지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캐닉 유경험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캐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기타 구인

InCourage Martial Arts에서 태권도 사범 모집합니다.

버크, 페어팩스, 애쉬번, 퍼설빌
Tony@incourage martialarts.com
문의 571-243-7027 (text 가능)

맥클린 한국 학교에서 교사 모집
어린이를 사랑하시는분
571-235-8997/ 703-505-5760

손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캐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 703-944-8433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애난데일 타운홈 렌트 \$3,400
방3, 화 3.5, 최신식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된 집, 화려하게 잘 꾸며 좋은 부엌과 화장실, 집 전체 나무 마루, 넓은 데크,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모델 하우스 보다 더 예쁜 집, 교통 편리, 즉시 입주

▶ 703-477-3114

1. 매나사스 타운 \$3,400
(2025년 12월 새집) 2,700 sq, 방4, 화3.5, 로프트(오피스), 2/4층 택, 차고 2, 모던 오픈 스타일 키친, 234/66/GMU 근처, 이노베이션 스팍 쇼핑몰 인근, 교통 편리, 센터빌 10마일

2. 브리스토 타운 \$3,200
방4, 화3.5, 차고 2, 전부 마루, 모던 오픈 스타일 키친, Patriot High 최고 학군, 234/Sudly manor, near Costco
▶ 571-239-6054

1. 게이더스 버그 타운홈 \$3,300
방4, 화장실 2

2. 제섭 타운홈 \$2,800 방3, 화장실 3

3. 엘리컷시티 타운홈 \$2,750
방3, 화장실 2.2

4. 파사데나 타운홈 \$2,600
방3, 화장실 2/2

5. 쿠沦비아 싱글홈 (반지하) \$1,500
방2, 화장실 2

▶ 301-318-4242 / 443-668-0453

스프링필드 타운홈 렌트 \$3,000
방2, 화2.2, 2 Assigned 주차, 밝고 환한 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
▶ 703-919-0472

1. 센터빌 타운홈 렌트 \$3,300
방3,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2. 센터빌 타운홈 렌트 \$3,500
방4,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3. 페어팩스 타운홈 렌트 \$3,600
방3, 화3.5, 주차 2, 2 월초 입주
▶ 703-863-0321

매나사스 기차역 가까운 타운홈 \$2,900
방3, 화2.5, 차고 2, 앤드 유닛
▶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전체 렌트
방4 화3.5 \$3,200 or 일부 방3 화2.5
\$2,200
470-485-1875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렌트 \$2,200
방2, 화2, Top Floor, 밝고 훈한 콘도, 업데이트한 부엌(Granite Counter Tops, 고급 캐비넷, 고급 SS 주방용구들)

넓은 리빙룸, 넓은 발코니, 마트 근처, 집 전체 잘 관리된 예쁜 콘도
703-477-3114

비엔나 메트로 근처 콘도 렌트 \$2,700
방2, 화2, 차고 1, 수영장, 휴트니스 센터, 물값 포함
571-271-2457

알렉산드리아 콘도 렌트 \$1,750
방1, 화1, 주차 2, 모든 관리비 포함
703-863-0321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2,250
301-466-1646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방 렌트

로던 싱글하우스 반지하 전체 렌트
\$2,000 (유포), 방3, 거실, 주방,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 가능
571-488-5860

스프링필드 싱글하우스 1층 큰방 렌트,
가족같이 지내실 여자분 환영
703-517-9108

로튼 (스프링필드 근처) 주택가 렌트
넓은 1층 같은 워크 아웃 전체
방 3, 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주방, 유트리티 포함, 출입문 별도
571-488-5860

Fairfax/Burke 지역
노바, 조지메이슨, 버크 H 마트 10분 거리
인터넷, 취사, 유포, 여자분 환영 \$650
571-214-0188 (문자 요망)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 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하우스
2층 옥실 딸린 큰방 렌트합니다.

571-970-8048

애난데일 시루앞 방 하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973-8123

애난데일 예촌앞 타운하우스 마스터 배드룸 또는 작은 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622-2033

센터빌 H 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밝고 조용한 워층방,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페어팩스 조지메이슨 & 노바 대학 근처 방
트,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703-472-2295

게인스빌 타운홈 베이스먼트 워크 아웃 방 하나 렌트합니다. 거실/화장실/세탁실/침실 주무실 분
703-732-1246

챈들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렌트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애난데일 워룸 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등 갖추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H 마트 옆 밝고 조용한 콘도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 큰 싱글홈 밝고 큰 화장실 딸린 방 렌트합니다. 교통 편리 롯데 1분 한강식당 1분 거리, 입구 별도, 주차 넉넉
703-395-4380 / 703-965-2343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간단한 취사, 가구 완비, 인터넷,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 (Backlick & Braddock이 만나는 곳) 조용한 싱글홈 베이스먼트 방 렌트 워크 아웃, 간단 취사 가능, 교통 편리, 주차 넉넉, 남자분 환영
703-750-2795

GMU 근처 조용한 동네 싱글하우스 옥실 딸린 큰방 하나 렌트합니다.
남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240-271-1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밝고 조용한 워층방 렌트합니다.
나무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성분 환영
고양이 펜션으로 신분증의 바탕입니다.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에서 5분 거리 싱글홈 월세 (아랫층과 월전분리) 렌트합니다.
방 3, 풀화장실, 리빙룸, 큰 택, 큰 창고, 차고 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3 3 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 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 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OK 택시
장거리 염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 공항, 장거리
카지노 모두
24시간 가능

TAXI
정크 빨리 빨리
엘리컷 시티, 락빌, 애난데일

노기사
571-332-3987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 703-477-3114

애난데일 (사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 1, 오픈 스페이스, 파킹 다수, RT29/6/28/286
▶ 571-239-6054

부동산 매매

센터빌 콘도 \$315,000
방2, 화2, 업데이트되고 잘 관리된 밝고 훈한 콘도, 부엌 (Granite Counter Tops, SS Appliances, 고급 캐비넷), 업데이트된 화장실, 넓은 거실, 넓은 발코니, 인근에 롯데마트
▶ 703-813-8949

1. 클립턴 싱글홈 \$900,000
방4, 화3, 차고 1, 다수 업그레이드 완료
2.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화1+Den, 끄로 케이션, 전체 마루, 넓은 데크,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 703-919-0472

1. 페어팩스 타운홈 \$850,000 2005년
방4, 화3.5, 차고 2, 집 전체 마루, 교통과 학군이 우수하며 높은 부동산 가치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핵심 입지 조건, 코스코 부근

2. 센터빌 타운홈 \$530,000
방3, 화3.5, 1250sf
3. 챠들리 타운홈 \$700,000
방3, 화2.5, 차고 2, 3 레벨 모두 범프 아웃되어 동네에서 큰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일보 2026년 2월 16일 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잘 꾸며진집, 좋은가격

▶ 410-417-7080

메릴랜드 랜햄 싱글홈 \$700,000
1991년, 방4, 화3.5, 카고2, 지하을수리, 업그레이드, 넓게 확장한 거실

▶ 703-863-0321 / 301-399-0140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홈 \$749,900
방3, 화3.5, 카고2, 교통 편리

▶ 703-489-6926

우드브릿지 싱글홈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싱글홈

▶ 703-622-0312

1. 센터빌 타운홈 \$600,000

방3, 화2.5, 카고1

2. 센터빌 타운 하우스 \$700,000

방3, 화2.5, 카고2

3.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화1

▶ 703-919-0472

알디 싱글 하우스 \$869,000
방4, 화2.5, 카고2, 전체마루, 굽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 571-239-6054

엘리컷 시티 싱글홈 \$749,000

방4, 화3.5, 카고2

▶ 301-318-4242/443-668-0453

1.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 2+2, 카고2, 아주 넓고 이쁜집, 마루 바탕, 1층에 안방

2.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 화장실 3+1, 카고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홈,

3. 엘리컷시티 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카고2, 밝고 이쁘게 잘꾸며진 집, 넓은 뒷뜰

▶ 410-417-7080

1. 위싱턴 DC SE 타운홈 \$649,000
방5, 화장실 3+1, 새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치운 예쁜집

2. 위싱턴 DC 뉴플렉스 \$950,000

방4, 화장실 4+1, 카고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한 예쁜집

▶ 410-417-7080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 sqft, 방5, 화5.5,

카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로우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야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 571-239-6054

사업체 매매

1. 애난데일 한국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멀리, 주 \$만불, 렌트 \$3,300

9년리스, \$17만

3. 엘리콧 시티지역 식당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창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태권도장 나간자리,

2,750 sf

▶ 문미애 703-534-4989

DC 백악관연 학교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 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곳파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식당, 패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전문/곳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워 라이센스/푸전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7.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8. DC NW 잘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9. DC NW 드라이크리닝 학교,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10.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 MD

11. 콩후터, Bakery 등 다수 리스팅 보유

▶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샌드위치 샵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 703-928-5990

델리샵 (DC) \$150K

DC 내 위치, 장사 잘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 703-625-9909

중고 매매 / 기타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스티커 박기계 (일본제품) 6,000불

2. 육구 버너 350불

3. 트림 (덴뿌라) 기계 300불

4. 스몰 그릴 300불

5. 큰 버너 200불

571-501-4780 (문자요망)

95년형 벤츠 300, 18만마일, \$3,000

703-966-9597

피아노 렌스 합니다.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2018년 포드 트렌짓 250, 인솔레이션된

콜러 벤, 카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티, 블리, 애난데일

장거리 염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703-869-5919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성호,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 571-546-8683

색소폰, 클라리넷, 헤론, 트럼펫, 트럼본, 플루트 - 악기별 개인 및 춤 레슨

757-338-8496

건축/페인트/마루

손 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캐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애디션, 데크,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 571-213-8678

J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하세요

▶ 703-835-0945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 일체

▶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 (In, Out), 데크 멀티너스와 클리

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 서비스

▶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 모든 공사, 주

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 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냉 · 난방

“냉 · 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히팅 ·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설비

AWARDED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 ·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데크, 캐비넷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 미용 타투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법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태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법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기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법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33-2033 051-469-4191 310-767-50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태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귀국 이사 전문

신용

저렴

▶자체 창고 보관

▶타주, 시내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귀국이삿짐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타주이사

100% 자체보험으로

해외이사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시내이사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수아 미용 타투

SERVICE LIST

- 두피 염색 (가르마, 정수리 전체)
- 눈썹, 아이라인, 입술
- 속눈썹/헤어 생장술
- MTS (미백, 주름개선 세럼)
- 스킨케어



443-722-592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 톡

소독

JD Star Pest Control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백금(Platinum)
K14, K18, Setting 전문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세팅 전문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각종 보석 정가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응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테아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설 분, 경매)

Hyundai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핫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넥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 위성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SK 플러밍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 • 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야기 둘째자,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룰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팎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팎 물새는 것

24Hr
703.499.5984

홈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씽크 / 디스포제
- ◆ 워터히터 / 물새는 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셀프펌프 교체

571.594.4080
VA A 라이센스 / 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
역류장치(Backflow)
MD Fire 스프링클러
주방 화재 방지
용접(철, 스텐, 알미늄)
제작 및 설치
(기친후드, 닥트)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 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틴트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룰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Maria: Oh hi Sarah. What a pleasant surprise.
마리아: 어머 안녕 새라. 이게 도대체 누구야.

Sarah: Hi Maria. I was in the neighborhood so I thought I'd drop by.

새라: 안녕 마리아. 이 근처에 왔다가 잠깐 들릴까 해서 왔어.

Maria: Come in and have a seat.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마리아: 어서 들어와 앉아. 마실 거 뭐 줄까?

Sarah: No thanks. I just want to thank you for being such a good friend during my college years.

새라: 괜찮아. 대학 때 너무 잘 해줘서 고맙다는 말 하려고.

Maria: Think nothing of it. You helped me a lot too.

마리아: 그런 생각 하지도 마. 너도 나 많이 도와줬잖아.

Sarah: It's hard to believe it's over already.

새라: 별써 대학 시절이 끝났다니 믿어지지 않아.

Maria: It sure has flown by.
마리아: 참 빨리도 지나갔다.

Sarah: I hope we can stay in touch.

새라: 앞으로 연락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Maria: Don't worry. I'm sure we'll be friends for life.

마리아: 그래야지. 평생 친구로 지낼 거잖아.

Sarah: That would make me very happy.

새라: 그 말 들으니 기분이 참 좋다.

think nothing of it; 그런 생각 하지도 마

(Maria greets Sarah a friend from her college days at the door...)

(마리아가 대학 친구 새라를 문 앞에서 맞이한다...)

기억할만한 표현

▶ drop by: 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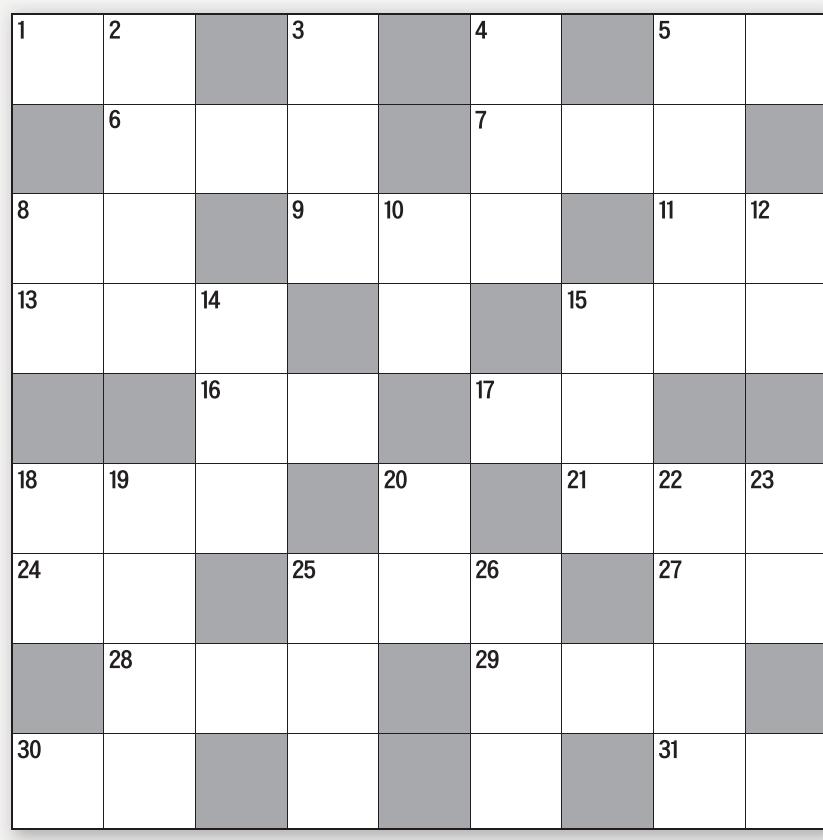
"I dropped by my brother's house before I came home." (집에 오기 전에 남동생 집에 잠깐 들렸었어.)

▶ fly by: 순식간에 지나가다.

"The weekends sure do fly by." (주말은 참 빨리 지나가.)

▶ stay in touch: 연락을 주고 받다.

날짜퀴즈



가로열쇠

(1) 결혼한 여자의 부모 형제 등이 살고 있는 집 (5) 조와 소금을 친 훈밥을 가름하게 뭉친 뒤에 고추냉이와 생선 쪽 파워를 얹어 만든다 (6) 쑈입문 밑의, 두 문설주 사이에 가로로 댄 나무 (7) 행사 등에 찾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는 기록 (8) 세상에 태어난 날 (9) 사방을 멀리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지어 만든 대. 분단의 아픔이 서린 고성 통일 ~에 다녀왔다 (11) 형제자매 가운데 나이가 적은 사람 (13)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경계를 서는 사람 (15) 백성의 재물을 함부로 끌어 빼앗는 짓 (16)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행진이나 시위를 함 (17) 수꿩 (18) 창고나 부두에서 무거운 짐을 갈고리로 써어 당겨서 어깨에 메고 가까운 곳으로 나르는 일. 트럭에서 내린 가마를 인부들이 힘겹게 창고로 ~ 치고 있다 (21) 잠수함에서 쓰는 반사식 망원경 (24) 곡하는 소리 (25) 방귀 냄새와 같은 냄새 (27) 연애의 경쟁자 (28) 떠하고 안타까운 형편을 털어놓고 말함 (29)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 (30) 산과 산 사이의 웅포 꽈어 들어가 물이 흐르는 곳 (31) 실제의 이름. 금융 ~제

세로열쇠

(2) 정수리에 침을 놓음. 따끔한 쟁고나 교훈 (3) 증상에 따라 약을 짓는 방법을 적은 종이 (4) 살 담배를 피우는 데에 쓰는 짧은 담뱃대 (5)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임. 같은 쳐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리게 마련임 (8) 살아 있는 부처. 덕행이 높은 승려 (10) 아직 피지 아니한 어린 꽃 봉오리. 작고 동그랗게 뭉쳐 굳어진 뎅이 (12) 누이의 아들 (14) 누에가 고치를 틀고 변하여 된 몸 (15) 깊이 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잠 (18) 시에 곡을 불인 성악곡. 보통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부르며, 독창곡·중창곡·합창곡이 있다 (19) 큰 소리로 몹시 슬프게 읊. 그는 부친의 부음을 듣자마자 ~을 터뜨렸다 (20) 키는 6미터 정도로 포유류 가운데 가장 크며, 누런 흰색에 갈색의 얼룩점이 있다. 목과 다리가 특히 길고 이마 양쪽에 짧은 뿐이 있다 (22) 횡당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줄을 몰라 정신이 나간 듯이 명함 (23) 주의나 경계를 하도록 소리를 울리는 장치 (25) 무엇을 씻거나 빨거나 하여 더러워진 물 (26) 몸속에 긴 관을 집어넣어 우리 몸 안을 검사하고 관찰하는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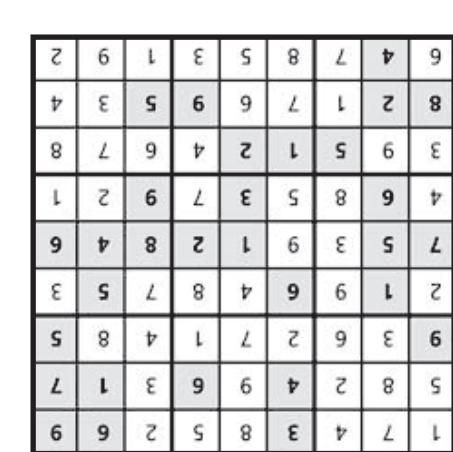
스도쿠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2주 \$20, 월 \$3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Eng)	한글(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CVS: /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중앙일보
온라인 쇼핑몰

핫딜

핫딜 세일

매달 찾아오는 핫딜의 풍성한 세일혜택! 이번 달에도 아낌없이 받아가세요~



프리미엄 안마의자 AI 헬스관리, 4D+3D 듀얼 마사지

아로마테라피, 16개자동&5가지수동 마사지, 온열기능
Osaki 플래그십듀오 안마의자

와잇글러브/일반배송 블랙/토프 \$13,999 \$3,999



CRH-Q0601WUS 다양한 메뉴와 Direct Touch 패널

IH 인덕션 히팅 기술로 완벽한 밥맛과 손쉬운 식사 준비
쿠첸 IH 인덕 밥솥 6인용 CRH-Q0601WUS

쿠첸 가성비 induction heating 밥솥 \$219.99 \$159.99



일반 두유가 아닌, 영양 설계로 만들어 환자식으로 사용가

비타민과 미네랄을 담아 하루 영양 루틴을 균형있게 보완

케어온 데일리 영양 두유

당케어 단백질케어

1박스(195ml x 20팩) \$45 2박스(195ml x 40팩) \$80



맥문동탕 엑스포리트 기침, 기관지염, 기관지천식에 효과

가래가 끊어지지 않는 기침, 만성기관지염, 만성인후염

HS 한국신약 맥담 엑스포리트 120포

맥문동, 반하, 간미, 대추, 인삼, 감초 성분 \$85.99



[핫딜 특별가] 닥터들이 추천하는 #1 무설탕 커피믹스

커피 본연의 깊고 진한 풍미는 그대로, 일등급 우유의 부드러운 맛

세상에 없던 커피 타이거 사카커피

3팩(30스틱) \$30 5팩(50스틱) \$45 10팩(100스틱) \$80



Fiorella 실기한 초콜릿과 고소한 피스타치오, 바삭한 식감

부드러운 초콜릿, 향긋한 피스타치오크림, 바삭한 카타이프

두바이 초콜릿 기프트 세트 24피스 288g

Fiorella 프리미엄 초콜릿 컬렉션 \$30



핫딜

미주최대 한인
인터넷 홀쇼핑

213.368.2611

가게/매장 구입은 불가능하니, PC나 셀폰으로 QR코드 찍고,
온라인 Hotdeal.Koreadaily.com에서 구입해 주세요.

QR코드 찍고 핫딜에서 편하게 주문하세요!

바디프랜드 • 패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카•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카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부모님이 좋아하실 선물은 역시 세라젬!! 디자인 OK 성능도 OK 기쁨 더~더욱 OK

풀무원 김치 냉장고 런칭 기념 세일!

내 공간에 딱 맞는 김치냉장고
바른먹거리를 담는 바른 솔루션

풀무원 김치냉장고 120L

PULMUONE KIMCHI FRIDGE 120L

SPECIAL
OFFER

\$1,399

\$999

STEAMBOY

스팀보이 카본 온수매트

SPECIAL OFFER

싱글 \$340 → \$300

버지니아 워싱턴 월딘 지정 대리점

월딘 편백 반신온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온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짜맞춤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끼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온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온의 명품

“모바일 앱으로 손님 폰에 세일 광고 및 마케팅 문구 전송, 무제한, 무료”



매출이
달라집니다!

- 멀티매장 + 창고관리
- 간편한 재고관리
- 고객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
- 모바일 앱을 통해 손님폰으로 세일 전송
- 기존 POS 시스템에서 재고 데이터 이전 가능
- 인터넷이 끊겨도 작동하는 오프라인 모드
- 100,000개 이상의 뷰티 아이템 데이터 내장
- 매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가능

“모바일 앱 세일 광고 품목,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구매, 결제 가능”

“세일즈 에이전트 모집중!!
문의: hr@worldbankcard.net”



WBS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WWW.WORLDBANKCARD.COM
WWW.IMIDUS.APP